

석사학위 청구논문

창의적인 유아미술 분석 연구

(1세~5세아까지의 그리기 중심으로)

지도교수 양 창 보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정 민 숙

1997년 8월

창의적인 유아미술 분석 연구

(1세~5세아까지의 그리기 중심으로)

지도교수 양 창 보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1997년 6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제출자 정 민 숙



정민숙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1997년 7월 일

심사위원장

부 현 일

심사위원

심사위원

박 창 훈

<抄錄>

창의적인 유아미술 분석 연구

(1~5세兒까지의 그리기 중심으로)

정 민 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양 창 보

다양한 정보와 급변하는 시대에 어느 분야에서든 창의성이 요구되고 있다. 창의성은 자신의 모든 일에 긍정적인 사고와 自己愛, 자연과 인간을 사랑하는 데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간됨을 만들어 간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인간에게 정신적·정서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대부분은 유아기(幼兒期)에 결정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연구는 1970년대에 와서야 필요성을 절감하고 연구하기 시작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사례 연구의 부족과 현장 지도의 다양한 경험 부족으로 충분한 교육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창의성은 유아기에 형성되므로 이 시기의 창의성 계발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유아의 잠재능력과 창의성을 신장(伸張) 시키는 유아미술 프로그램(program) 연구와 지도 방법이 아직은 만족할 정도가 아니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관련된 문헌을 참고하고, 유아미술 지도 경험을 살려 95년부터 수집한 유아미술 작품을 나이별로 조사 분석 하고자 했다.

유아기에는 연령 차이에서 오는 격차가 현격하게 다른 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술교육은 그러한 사실을 거의 무시한 채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3세 어린이나 5세 어린이를 비슷한 교육 과정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일부 어린이에게 있어서 미술은 어렵고 힘든 것으로 인식되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므로 체계적이고 계획된 교육으로 유아기의 미술교육이 지루하지 않는 즐겁고 재미있는 과목이 되도록, 유아기의 미술작품을 정리 분석하여 지도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미술 지도는 개성과 감정이 조화로운 창의성 계발에 꼭 필요하다고 본다.

目 次

I. 서 론	1
II. 창의적인 유아미술	4
1. 유아미술교육의 목적	4
2. 유아미술의 내용	5
3. 유아미술의 평가	7
4. 유아미술의 감상	10
5. 유아미술 지도	11
III. 유아미술 표현의 특징	17
1. 평면 표현	17
2. 색채 표현의 특징	20
IV. 1950년 前後와 20세기말 유아들의 미술표현	25
1. 1950년 전후의 미술표현 발달단계 연구	25
2. 20세기말 유아들의 표현단계	37
V. 결 론	47
참고문헌	50
Summary	54
참고도판	56

표 목 차

표 1. 자기표현과 모방의 차이점	6
표 2. 미술교육의 내용구성	7
표 3. 색깔과 인성 요인과의 관계	21
표 4. 상황에 따른 선·형태·색상의 변화	22
표 5. 유아미술 표현 발달단계 특징비교	36
표 6. 1세아의 미술표현(1995~97년)	38
표 7. 2세아의 미술표현(1995~97년)	39
표 8. 3세아의 미술표현(1995~97년)	41
표 9. 4세아의 미술표현(1995~97년)	43
표 10. 5세아의 미술표현(1995~97년)	44



그림 목 차

원색 그림 1. 4세, 남, <무지개>	56
원색 그림 2. 3세, 남, <바다>	56
원색 그림 3. 4세, 남, <풍선과 무지개>	56
원색 그림 4. 3세, 남, <바다와 고래>	57
원색 그림 5. 3세, 남, <우리 마을>	57
원색 그림 6. 4세, 여 <눈이 와요>	57
원색 그림 7. 5세, 남, <돌고래 쇼>	58
원색 그림 8. 5세, 남, <그림일기>	58
원색 그림 9. 5세, 여, <동생과 나>	58
원색 그림 10. 3세, 남, <철봉 타기>	58
그림 11. 18개월, 여, <점찍기>, 크레파스	59
그림 12. 20개월, 여, <난화>, 싸인펜	59
그림 13. 23개월, <원형>, 크레파스와 물감	59
그림 14. 2세, 여, <태양과 사람>, 크레파스	59
그림 15. 3세, 남, <사람>, 연필	59
그림 16. 30개월 <물고기>	60
그림 17. 3세, 남, <꽃>, 싸인펜, “의인화 표현”	60
그림 18. 3세, 남, <집>, 연필, “의인화 표현”	60
그림 19. 3세, 남, <주전자>, 연필, “정물화”	60
그림 20. 4세, 여 <친구와 꽃>, 크레파스와 물감, “미분화 표현”	61
그림 21. 4세, 남, <말>, 볼펜, “보고 그리기”	61
그림 22. 4세 남, <나와 집>, 싸인펜과 크레파스, “강조된 표현”	61
그림 23. 3세, 남, <젓소>, 볼펜과 크레파스	61
그림 24. “배꼽이 강조된 표현”	62

그림 25. 손바닥 찍기	62
그림 26. 4세, 남, <이비인후과>, 볼펜, “경험화”	62
그림 27. “올챙이식 인물 표현”	62
그림 28. “20개의 기본 낙서표현 패턴” (켈로그, 1970)	63
그림 29. 결합(combine)의 유형(3세)	63
그림 30. 36개의 가능한 결합	63
그림 31. “각종 만다라 표현”	64
그림 32. 연구자별 미술표현 발달단계	64
그림 33. 3세, 남, <이모가족과 나>, 연필	65
그림 34. 3세, 남, <엄마와 나>, 연필	65
그림 35. 3세, 남, <기린>, 볼펜	65
그림 36. 3세, 남, <사슴과 고양이>, 볼펜	65
그림 37. 4세, 여, <가족>, 볼펜	66
그림 38. 3세, 남, <새 장>, 크레파스	66
그림 39. 3세, 남, <엄마와 아기하마>, 볼펜	66
그림 40. 4세, 남, <공룡> 볼펜	66
그림 41. 4세, 남, <자전거 타기>, 싸인펜	67
그림 42. 4세, 남, <도깨비 가족>, 크레파스와 물감	67
그림 43. 5세, 남, <엄마>, 연필, “보고 그리기”	67
그림 44. 5세, 남, <다간>, 크레파스, “만화 영화”	67
그림 45. 4세, 남, <신호등과 자동차>, 크레파스, “기저선 표현”	68
그림 46. 5세, 여, <우리집>, 싸인펜	68
그림 47. 5세, 남, <할아버지와 연필>, 볼펜과 싸인펜, “설명적 표현”	68
그림 48. 5세, 남, <우리 2층집>, 크레파스, “투시화 표현”	68
그림 49. 5세, 여, <동화 나라>, 싸인펜	69
그림 50. 5세, 남, <해저 관광>, 색연필, “경험화”	69
그림 51. 5세, 남, <석고 도형>, 크레파스	69
그림 52. 5세, 남, <바닷속 나라>, 싸인펜, “동존 표현”	69

I. 서론

유아교육은 놀이 중심으로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미술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교과이다. 어린이들의 알아 볼 수 없는 '낙서(scribble)'를 이해하려면 교사의 폭넓은 이해와 경험이 필요하다. 아무 생각없이 긁적거린 것같은 '낙서'도 소홀히 하지않는 교사와 부모에 의해 유아들은 창의력을 키우고 표현 욕구를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톨(K. O. Toole)의 연구, 윌리엄스(R. M. Williams)의 연구의 결과로 유아미술 활동은 유치원에서 학습활동 프로그램에서 간단한 내용으로 다를 것 아니라,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에서는 3세에서 5세까지의 어린이를 위한 체계적이며 나이에 맞게 구분된 프로그램없이 간단히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유로 미술과목이 어린이들에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우며 나아가는 어린이들의 창조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창의성은 아주 어린 시절에 형성되기 때문에 유아기의 창의성 계발이 중요하다".¹⁾ 그리고 가정환경이나 나이와 성별 등에 따른 개인차를 인정하고 유아의 심리에 맞는 재미있고 유익한 지도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1949년 교육법이 공포(公布)되었다. 그러나 6.25사변으로 1955년에 겨우 초·중등 교육과정이 제정되었으나 취학전의 유아교육은 70년대에 거론된 짧은 연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아미술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1) 오종숙(1996), 「유아미술교육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p.36.

그러나 1984년 한국조형교육학회(韓國造形教育學會)의 창설은 미술교육 분야에 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학회는 젊고 의욕에 찬 소장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좋은 논문 발표를 통해 유아에서 청소년 및 대학 미술까지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²⁾ 이는 우리나라 미술교육계에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로웬펠드(V. Lowenfeld)는 “어린이의 작품은 그 시기의 전체적인 인성(人性)을 반영(反映)한다”³⁾고 했다. 어린이들은 느끼는 그대로 표현한다. 그때의 기쁨이나 슬픔, 소망이나 불쾌함까지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의 도움으로 완성된 작품보다는 미숙하지만 어린이 스스로 완성해 낸 작품을 더 소중히 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러 관련된 문헌을 참고하고, 필자의 유아미술 지도 경험과 95년부터 수집한 유아미술 작품을 토대로 나이에 따른 미술표현 발달단계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는, 현재 어린이들의 12~23개월(1세), 24~35개월(2세), 36~47개월(3세), 48~59개월(4세), 60~71개월(5세)까지의 표현의 가능성을 찾아보고 그들의 정서에 맞는 감상과 평가 방법을 연구하였다.

둘째는, 약 1950년 前後의 미술표현 단계와 현재의 유아미술표현 단계를 비교 분석 하고 그 차이점을 알아 보았다. 그리고 “그림은 지적 수준이나 감정상태를 나타내는 것”⁴⁾이므로 1950년 전후와 현재의 유아들의 감정과 지적인 변화를 예측해 보았다.

셋째는, 올바른 유아미술의 지도 방법을 조사 분석하고 바람직한 전인적인 발달을 위한 교사의 지도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2) 김 정(1993), 「미술교육총론」, 학연사, p.33.

3) 이규선 외(1994), 「미술교육학 개론」, 교육과학사, p.381.

4) 재캘린 굿나우(1995) 「어린이들의 그림그리기」, 광덕영 역, 학문사, p.17.

본 연구는 미술표현의 변화를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아, 5세아까지의 구체적인 분석으로 나이와 개성에 맞는 효율적인 지도 방법을 모색(摸索)해 보려하였다.

이는 전인적인 유아미술교육의 발전과 유아기의 창의력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창의적인 유아미술

1. 유아미술교육의 목적

유아기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을 스폰지처럼 빨리 흡수하고 무조건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유아에게는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지식의 80% 이상이 시각에 의한다”⁵⁾고 했다. 나머지 20%는 직관(直觀)이나 통찰력(洞察力), 경험이나 그 순간의 감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유아들은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만져보고 싶어하며 잡아 당기거나 밀치면서 이 세상을 느껴 보려한다. 그런데 미술은 “시각(視覺)과 촉각(觸覺) 예술로서 감각 기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보거나 느낄 수 있도록 형상화하는 일”⁶⁾이므로 유아들에게는 더욱 친밀하며 여러 가지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직관력과 미적 감각을 늘려 갈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미술교육학자인 아이스너(Elliot W. Eisner)는 미술이 전인교육에 필요하긴 하지만 필수 교과가 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사회 인식에 반대 하였다. 미술은 “인간의 지성을 변화시키는 주요 교과”⁷⁾라고 했다. 유아기에 미술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지성을 변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작업하는 동안에 아이디어(idea)를 생각하게 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끊임없는 변화를 스스로 창조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기 때문이다.

로웬펠드는 창의성은 사고의 융통성과 아이디어의 유연성을 의미한다고

5) 최병상(1990), 「환경조각」, 미술공론사, p.28.

6) 김 정(1993) 「미술교육총론」, 학연사, p.33.

7) E. W. 아이스너(1995),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 예경, p.301.

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며 어떤 경우에는 남다른 사고방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독특하고 개성적인 창의성은 아주 어린 시절에 형성되기 때문에 유아기에 있어서 창의성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유아들은 처음에 동화를 들려주면 그림을 “읽기” 시작한다. 그 그림을 보고 읽어준 동화의 내용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은 맨 처음으로 언어를 전달하는 매체(媒體)가 된다. 따라서 유아기의 미술은 가장 흥미로운 것이 되기도 한다.

미술지도를 통하여 학습의 기본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개성과 감정, 창의성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롭게 창조하는 미술은 유아교육에서도 중요한 교과가 되어야 한다.

2. 유아미술의 내용

어린이들은 언어로 표현하는 일이나 노래를 부르는 등 자연을 관찰하거나 사회적 활동에 따르는 지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일과 함께 그림으로 나타낸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어린이들에게도 “많은 사고(思考)력이 동원되며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시각적으로 발생한다”⁸⁾고 했다.

어린이들은 그림을 그리거나, 가위로 자르며 풀로 붙이는 동안 집중한다. 지점토로 만들고 물감으로는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여 혼합하는 작업을 다양하게 제공해서 흥미를 잃지 않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래서 무언가를 열심히 집중하는 동안은 그냥 놔 두는 것이 좋다. “우리는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교육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⁹⁾ 고기를 낚아 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얘기다.

8) 재캘린 굿나우(1995), 「어린이들의 그림그리기」, 광덕영 역, 학문사, p.15.

9) E. W. 아이스너(1995) 「학문기초 미술교육운동」, 학지사, p.59.

조금 어색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치'있는 것이다. 구속받지 않는 어린이는 자유롭게 선택할 줄 알고, 자기 스스로 통제하는 방법도 터득한다.

그러면 '자기표현과 모방의 차이점을 표1'을 참고하며 살펴보자. 자기표현을 하는 것은 독립적인 사고로 자유와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쉽게 적응하며, 정서적인 배출구를 조절하면서 결단성있게 자기성취를 발전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엇이든 표현하고 싶어할 때 자유롭게 작업하게 하고, 다양한 자료로 눈과 손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표1. 자기표현과 모방의 차이점

자 기 표 현	모 방
어린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표현	수준에 맞지 않는 표현
독립적인 사고	의존적인 사고
정서적인 배출구	좌절감
자유와 융통성	억압과 제한
새로운 상황에 쉽게 적응함	도식(圖式)을 발달시킴
발전, 성취, 결단성	다른 사람에 의한 학습, 의존성, 완고성

자료 : 로웬펠트·브리테인(1993),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미진사, p.48.

어린이들의 학습과정에서 동기유발없이 유아의 흥미를 유도하기는 어렵지만, 미술은 색이나 생활 용품, 필요한 장난감을 만들어 보면서 더 친숙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은 “소리나지 않는 울음소리이며, 보이지 않는 마음의 모습이자, 도움을 바라는 신호(sign)인 것”¹⁰⁾으로 무의식의 표현도 가능한 것이 그림이다.

이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을 지닌 미술의 내용구성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10) 나카니시 오시오(1996), 「그림으로 읽는 아이들 마음」, 사계절, p.15.

표2. 미술교육 내용구성

조형놀이 : 실내·실외(생활경험, 공간평면놀이)
그리기 : 놀이·경험·상상·관찰표현
조소 : 놀이·경험·상상·관찰표현
만들기와 꾸미기 : 상징·기능적표현(여러가지 표현)
감상 : 조형미·자연미

유아미술은 작업활동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학습이나 박물관, 영화, 연극, 교실이나 실외에서 만들어지는 모형 디자인 등에 관계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¹¹⁾ 어린이들은 다양한 정보를 여러 가지의 재료와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고 조형작품으로 만들어 낸다.

어린이들의 미술작품은 정말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생각이며 ‘생활의 한 단편’인 것이다.

3. 유아미술의 평가



아직도 취학전 아동의 그림이 화면에 가득 찬 그림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흰 여백이 남지 않도록 메꾸는 채색으로 어린이들의 손목을 무리하게 운동 시킬 뿐만 아니라 그림을 지겨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작품평가를 하는 주된 이유로는 아동의 성장발달 및 감정상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것”¹²⁾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많은 교육 현장에서 우수하다고 선택하는 작품이 사실적이고 깔끔한 그림인 것은 매우 아이러니(irony)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1) 이화자(1987), “유치원 미술활동 현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10.

12) 김 정 외(1996), “미술평가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창지사, p.84.

미국의 아동학자인 로다 켈로그(Rhoda Kellogg)는 아동들은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 자신이 내적인 만족을 얻게되며, 인정해 주는 미소만을 띄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또한 잘잘못을 지적하거나 비평(批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장에서는 무조건 칭찬을 해 주거나 안된 부분을 고쳐 주거나 도장을 찍어 보상해 주는(그림 41) 교사들이 많다는 사실이 개선 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아미술은 유아의 정신 발달의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¹³⁾ 어린이의 재능을 평가하는 것은 미술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선은 변화있는 평가방법으로,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를 추측할 수 있는 교사의 융통성있는 질문과 어린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는 관심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의 개성적 특색을 잡아 그 개인차를 생각하여 지도 계획에 투입하고 지도방법을 생각”¹⁴⁾해야 되기 때문이다. 유념해야 할 것은 다른 어린이와의 비교가 아니라, 개별적(個別的)인 관심으로 그 어린이에게 지난 번보다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스너(1972)는 미술평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째는, 유아 스스로 자신이 지난 학기에 비해 이번 학기에는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student with self).

둘째는, 다른 유아들과의 비교 평가로 학급 안에서의 유아의 성취수준을 비교하는 것이다(student with class).

셋째는, 유아는 교육과정에 설정된 교수목표의 기대치에 대한 유아의 성취도를 비교하는 평가이다(student with criterion)”.¹⁵⁾

13) 김재은(1995), 「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진단」, 교육과학사, p.373.

14) 이인태(1988), 「유아미술지도」, 학문사, p.32.

15) 오종숙(1996), 「유아미술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pp.154~155.

우리나라에서는 두번째와 세번째 평가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미술 작품은 주관적이어서 우열을 비교할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펴는 학자들도 있다. 필자도 개성이 존중되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함부로 평가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유아교육학자들은 첫번째 평가방법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가를 한다는 일이 잘 그린다고 못 그린다고 선을 긋는 것이라는 그릇된 사고는 버려야 한다. 또 “완성도 보다는 가능성에 많은 점수”¹⁶⁾를 줄 수 있어야 하고, 작품평가가 곧 미술평가라는 생각도 버려야만 할 것이다. 잘 그리든지 못 그리든지 어린이들은 놀이의 하나로 그림을 즐겨 그린다. “절대적인 규범을 지닌 평가항목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¹⁷⁾ 유아 미술 작품은 어린이들의 일기와도 같고, 천진난만한 느낌과 희망이 살아 있는 自我의 거울인 것이다.

평가하는 것은 유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느끼는 계기(契機)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유아의 감정을 이해하며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아들이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한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어린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평가로 인해 유아들이 좌절하거나 미술이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되겠다. 평가는 또다른 자아발견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4. 유아미술의 감상

누구나 자기 자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 취학전 어린이도 자기

16) 주종근(1995), 「잠재에서 창조로」, 미진사, p.25.

17) 김 정 외(1996), “미술평가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창지사, p.85.

가 좋아하는 색은 “예쁘다”고 하고 싫어하는 색은 “지지한 색”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음에 든 그림은 “잘 그렸다”고 하고 이해할 수 없으면 “못 그렸다”고 했다. 이렇게 유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울 수 있을 때이며, 또 자유로워야 한다.

그림에 있어서도 어른 그림과 어린이 그림의 차이를 존중한다면 그림을 보는 방법 또한 다르지 않으면 안된다. 어린이들의 그림을 어떻게 보는 방법이 옳은 것일까?

어른의 그림은 조용히, 말없이 보는 그림이다. 그에 비해 “유아의 그림은 보는 그림이기보다는 오히려 ‘묻고 듣는’ 그림이다.”¹⁸⁾ 그림이란 보는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그림이라고 했는데, 유아의 그림인 경우는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생뻍취 베리의 “어린왕자”에서는 자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을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 늘 어른들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고 묘사 되고 있다. 어린이들의 그림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물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그림이 된다.

그림은 꼭 사실적으로 그려야 한다는 이유는 없다. 사실적인 것을 원한다면 사진으로 찍으면 되는 것이다. 화가나거나 기쁨·장구·북소리·팽과리 소리·슬픔 등을 線들로 표현하게 하여보자. 그러면 마음의 소리를 선이나 어떤 형태로든 볼 수 있을 것이다. “묘사란 인간이 자기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들에 대하여 갖는 놀라운 이중 경험의 표현”¹⁹⁾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술 작품은 말이나 노래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들인 것이다. 그리고 말이 필요하지 않고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한 것들이 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어린이에게서 하루가 다르게 마음과 생각도 변해감을 느낄 수 있다. 그 마음과 생각이 담긴 미술표현이 만약 우리에게 아직

18) 박금숙 외(1993), 『아이의 그림으로 말한다』, 여성사, p.26.

19) 게라두스 반 데르 레우후(1994), 『종교와 예술』, 윤이금 역, 열화당, p.36.

까지 은밀히 보관되어 있다면 어떨까? 애지중지(愛之重之)하며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 보게 될까? 어지럽다고 버리게 될까?

어느 어린이의 경우를 보면 교사나 부모의 보관으로 1년전의 자기 그림을 살펴 보면서 새로운 구상을 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한 '낙서'를 보고는 누가 그렸냐며 못 그런다고도 했다. 감상은 또 다른 대화이다. 자기의 생각과 다시 만나게 되고, 친구들의 느낌을 전해 받으며 '나도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만남의 장인 것이다.

5. 유아미술 지도

어린이들의 작업활동은 창조적인 활동이 주가 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일정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될 때에, 유아가 특별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표현하도록 한다.²⁰⁾ 유아들이 부지런히 작업하고 있는 동안은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띄워 줄 수 있는 교사는 어린이들의 심리를 이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른들과는 달리 어린이들은 눈과 손보다는 마음으로 그린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동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길잡이가 된다고 믿는다.²¹⁾ 작품이 다소 엉성해도 어린이 스스로 하고 있는 한은 그냥 놔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들 나름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도움은 오히려 어린이들의 의욕을 상실 시킬 것이다.

그러나 “시작하기 어려워하는 유아를 교사는 도울 수 있어야 한다.”²²⁾ 꼭 완성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어린이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거든 거기서 중단해도 된다. 어린이도 존중 받으면 존중하는 법을 알게 되는 것이다.

20) 허혜경(1993), 「창작공예 중심의 유아 작업활동」, 학문사, p.46.

21) 정대식(1993), 「아동미술의 심리연구」, 미진사, p.13.

22) 이정환(1997), 「유아교육의 통합적 미술교육과정」, 창지사, p.107.

미국미술교육협회(NAEA)를 중심으로 미술도 하나의 학문으로 보고 미술에서의 기본적인 것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학문에 기초한 미술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어린이들을 자율적으로 그런 능력이 꽃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지도 방법을 보다 과학적, 합리적,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술교육의 특성은 유아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꾸미기·협동화 등으로 “많은 어린이들과 함께 섞여 놀면서 서로 배우고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그리는 데 있다”²³⁾고 했다. 꾸미기나 협동화를 하면서 친구가 다 칠하지 못한 부분을 친구와 의논해서 칠해 주기도 하면서 친구의 생각을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자료의 제시로 아동의 잠재능력을 끌어내어, 어린이들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 등을 숨김없이 나타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1) 단계별 미술지도

(1) 만 1세

1세 전후해서 연필이나 크레용을 손에 쥐기만 하면 벽이나 손등, 바닥 등에 ‘낙서’를 한다(그림 12). “낙서는 처음에 점에서 시작된다”²⁴⁾고 했다. 유아들은 점을 여기 저기에 찍어 놓는 것이다. 점 몇개를 찍어서는 “아 빠나 빠팡”이라고도 했다(그림 11).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를 그려내는 욕구가 싹트는 모양이다.

1세 정도면 “그림붓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도 되는 시기이다.”²⁵⁾ 처음에는 종이가 찢어지기도 하지만 마음껏 그릴 수 있도록 한다. 20개월이후가 되면

23) 정대식(1993), 「아동미술의 심리연구」, 미진사, p.32.

24) 차동채·김춘일(1996), 「아동미술의 지도와 이해」, 미진사, p.222.

25) 일본예술교육연구소(1995), 「0~3세 유아의 그림지도」, 김윤옥 역, 어린이들, p.28.

원을 즐겨 그리는 어린이도 있었다(그림 13).

이 시기에 모래나 흙을 만지는게 하는 것도 좋겠다. 물 장난이나 “핑거 페인팅”,²⁶⁾ 물감도 어린이의 감성능력에 영향을 주므로, 기회가 있는대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림 13).

색종이를 찢어 붙이거나 접어서 갖고 놀 수 있도록 한다. 색 감각과 종이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서 꾸미기 활동에 도움이 된다.

(2) 만 2세

선을 눈으로 보고 길이를 측정하여 정지하며, 선과 선을 연결하고 원을 마무리하는 등의 그리기를 하게 된다(그림 14). 이 시기의 그림은 “모양이 분명한 둥글고 커다란 동그라미와 작은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다”²⁷⁾고 했다. 휘갈겨 그리기에서 형태가 있는 것으로 그리는 어린이도 있었다(그림 16).

1세 때의 시작도 끝도 없는 낙서와는 달리 시작과 마무리가 분명한 선을 그린다. “의미 부여가 시작”²⁸⁾되는 것이다. 어느 정도 형체를 짐작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다(그림 14·16).

색종이나 신문지를 마음대로 찢거나 갖고 놀게 하는 것은 손동작에 힘을 주는 작용을 한다. 색종이를 교사가 여러 모양으로 직접 오리거나 접어서 보여주고 마음껏 갖고 놀게 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지점토와 찰흙은 어린이의 손에서 갖고 놀기 좋은 크기로 적당히 잘라 준다. 자기의 손 놀림에 따라 변하는 점토의 촉감으로 어린이들은 즐거워 했다.

(3) 만 3세

이제까지 ‘낙서’를 하지 않았던 어린이들도 다른 어린이들이 하는 것

26) 핑거 페인팅(finger painting) : 그림 물감으로 물들인 풀을 종이에 바르고, 그것이 마르기 전에 손가락이나 젓가락 등으로 긁어서 무늬나 그림을 그리는 기법.

27) 일본예술교육연구소 편(1995), 「0~3세 유아의 그림지도」, 김윤옥 역, 어린이들, pp.21~23.

28) 박금숙 외(1993), 「아이는 그림으로 말한다」, 여성사, p.104.

을 보면 쉽게 낙서를 하고 싶어 하는 시기이다. 3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시작해도 늦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3세는 그림의 발달 순서에서 인간으로의 질적 전환기라 할 수 있다”²⁹⁾고 했다. 무엇이든 흥미를 갖고 그림을 그리며 만들려고 할 때인 것이다.

어른들은 線이나 원이 무의미해 보일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그 어떤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그림 15).

낙서를 반복하다가도 집이나 꽃·자동차나 사람·사물 등을 정성드려 그리기도 했다(그림 33·35). 그러나 낙서는 5세가 되면 차츰 없어진다.

색종이를 찢어 붙이거나(원색 그림 2) 가위로 직접 오릴 수 있도록 한다. 요즘은 색점토도 시중에 나와 있어서 어린이들의 색감각을 점토를 섞어 보면서도 익힐 수 있다.

(4) 만 4세

4세가 되어 자기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누가 그려 주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 교사나 부모의 그림을 심지어는 “못 그렸다”고까지 했다. 그러면 “그래 잘 그리는 영희가 한 번 그려 볼래요”하면, 자신있게 그림을 다 그리고는 “자 잘 그렸죠?”했다. 이 시기에 교사가 그려줘도 어린이들의 그림하곤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어린이의 얼굴을 스케치해서 줬더니 자기의 그림을 보고 좋아했다. 그 어린이는 연필이 코에 묻어서 시커멓게 되도록 자기의 초상에다 뽀뽀를 하는 거였다. 이걸 그림을 통한 교사와 어린이와의 말없는 대화라고 할 수 있다.

“표현은 형태나 도구 등의 관찰 및 감상으로 인지(認知)를 통해 자발적으로 그저 생활처럼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³⁰⁾고 하겠다. 어느 태양이 뜨거운 날에 수돗물로 분수를 만들며 뿌려서 무지개를 보여 줬더니 어린이들은 무지개를 그리기 시작했다. 무지개의 7가지색을 이야기 해주지 않았는 데도

29) 박금숙·이은순(1993), 「아이의 그림으로 말한다」, 여성사, p.109.

30) 김 정(1993), 「세계의 미술교육」, 예경, p.106.

거의 같은 색으로 색칠하는 거였다(원색 그림 1·3).

“4세는 그리기 전에 ‘무엇을 그릴 것인가’를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이야기 해서 미리 정하고 그리게 된다”.³¹⁾ 유아들은 손이 먼저 그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속에서 이미지가 떠오름으로써 손이 움직이고 그림이 시작되는 것이다.

색종이나 점토로 만드는 것이 능숙해지면, 자기가 좋아하는 로봇이나 인형을 필요에 따라 만들며 놀 수 있었다.

(5) 만 5세

5세가 되면 어린이들은 “3~4세의 의도적이고 상징적 표현에서 더 나아가 무엇을 그렸는지 어른이 보아도 한눈에 알 수 있게 발전한다”.³²⁾ 그리고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주로 표현하는 ‘가치 표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돌고래 쇼를 보고 와서는 돌고래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그림 7).

“5세 이전의 유아에게는 지각이 묘화표현(描畵表現)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도, 5·6세 이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³³⁾고 했다. 5세가 묘화의 가장 절정기라 할 수 있다.

새로 만난 선생님과 처음에는 친숙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친해져 간다. 따라서 선생님의 모습을 조금씩 크게 그려간다. 어린이의 생활감정에서 차지하는 선생님에 대한 평가가 차츰 높아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나이 차이에 따라 유아들의 표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아들의 나이 차이에 따라 교사의 지도도 달라져야 되겠지만, 잘 그리고 못 그리는 유아에 따른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못 그

31) 박금숙·이은순(1993), 「아이의 그림으로 말한다」, 여성사, p.125.

32) 박금숙·이은순(1993), 상계서, p.132.

33) 김 정(1993), 「미술교육총론」, 학연사, p.94.

리는 유아는 “못 그려요 그려 주세요”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교사가 그려 주는 것보다는 잘 그리는 유아가 그리도록 한다면, 유아들의 특성에 맞는 그림으로 친구와 서로 도와 협동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될 것이다.

채색(彩色)을 할 때에는 어떤 색은 색칠하지 말고 어떤 색은 색칠하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 유아들의 느낌과 감정에 따라 마음껏 색칠하면서 자신의 색을 스스로 선택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유아미술을 지도하는 것은 유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상상력이 바로 창의성으로 이어져 그리거나 만들기 등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의 탐구성을 북돋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유아미술 표현의 특징

종이 한 장이나 연필 한 자루만 있어도 어린이들은 재미있게 놀 줄 안다. 그리고 흙이나 모래 장난을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기도 했다.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는 어린이는 있지만 그래도 어린이들은 그림 그리는 것을 즐긴다.

어린이들이 미술활동에 계속 흥미를 갖도록 적절한 미술지도를 하려면 '유아미술의 특징'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어린이에게 "학습 성과가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성장과 발달단계에 맞게 적절한 때에 여러가지 자료들이 주어지기 때문이다".³⁴⁾

아인슈타인은 3세까지는 말을 못 했으며, 8세까지 열등아였다. '이 어린이로부터는 아무런 지적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의 기록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는 유아의 흥미의 정도와 작업하는 과정이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어린이 스스로 배우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1. 평면 표현

어린이들은 미술에 취하곤 한다. 눈을 즐겁게 하고 손을 적당히 움직이게 하는 만들거나 그리기 작업에 열중하는 것이다.

유아기는 낙서로 시작해서 점차 형태를 그리간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34) 이정환(1997), 「유아교육의 통합적 미술교육과정」, 창지사, p.108.

백지에다 표현해 내는 것이다.

“아이스너는 유아들의 낙서는 그들의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촉각적이고 시각적인 만족에 의해 유발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 지각기법과 작품기법이 증대되고 형태의 유형은 어린이들의 연령과 관련이 있다”³⁵⁾고 했다. 어린이들이 커가면서 아는 것도 많아지고, 그 성숙에 따라 표현도 다양해지며 ‘변화’하는 것이다.

유아들은 처음에 거의 선으로 표현한다. 4세 전후로는 얼굴을 그리면서 얼굴을 색칠하고 머리를 그리면 바로 다시 머리에 색칠하며 완성했다(원색 그림 8). 4세 정도면 面으로 표현하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었다(원색 그림 6·8). 그리고 스케치도 한 가지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색으로 스케치한 다음에 색칠하곤 했다(원색 그림 4). 어느 정도 색채의 느낌을 알고 즐기는 것 같다.

1) 미분화 표현

유아가 “사물을 관련짓는 능력이 미숙할 때에 집보다 큰 꽃을 그리며 (그림 22), 친구보다 꽃을 더 크게 그리기도 한다”³⁶⁾(그림 20). 이런 현상은 형태의 크기나 물체의 관찰력, 물건과 물건간의 구성력이 개별적으로 잘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의인화 표현

사물이나 식물, 그리고 동물을 인간과 똑같은 생명이나 정신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시각으로 이를 애니미즘(animism)이라 한다(그림 18). 그래서 집이나 꽃에도 눈, 코, 입을 그려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범신론(汎神論)적 표현이라고도 한다(그림 17).

35) 오종숙(1996), 「유아미술교육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pp.126~127.

36) 이정환(1997), 「유아교육의 통합적 미술교육과정」, 창지사, pp.52~53.

3) 동존 표현

건물의 내려오는 계단과 올라가는 계단을 나란히 그리기도 하고 갈 때와 올 때가 다른 시간 경과를 동일한 평면에 나란히 그리는 표현방법이다.

이러한 “이탈적인 공간 표현을 주관적인 공간표현(subjective space representation)”³⁷⁾이라고 한다. 이 표현은 3~6세 사이에 종종 등장하는 유아의 특징의 하나이다(그림 44·52).

4) 투시화(X선식 그림) 표현

집을 그려도 집 내부의 책상이나 전등, 화분이나 장롱까지 그리는 것이다. 심지어는 앉아서 식사하는 가족들도 그린다(그림 48).

유아는 직관적인 표현으로 원근법이나 시각적인 통일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유아는 본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그린다”³⁸⁾는 것이다(그림 43·45). 이를 지적 사실기(realism)라고도 부른다.

5) 확대(강조된) 표현

자기 중심적인 관심으로 중요하다고 느끼는 한 부분만 표현하는 것이다(원색 그림 7)·(그림 22). 유아가 목이 없는 사람을 그리거나 손과 발이 없고 배꼽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그림 24·37).

이와같은 미분화 표현이나 의인화 표현, 동존 표현이나 투시화 표현, 확대 표현 등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한 가지 표현을 즐겨 그기도 했다. 이것은 사실상 “유아의 환상과 현실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면서 최초로 사회에 참여하는 수단이기도 하다”³⁹⁾ 그림 그리기를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느끼며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37) V.로웬펠드\W.브리테인(1993),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서울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역, 미진사, p.143.

38) 이규선 외(1994), 「미술교육학 개론」, 교육과학사, p.147.

39) 오종숙(1996), 「유아미술교육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p.107.

이런 표현들은 유아기를 지나 8세쯤이면 조금씩 없어진다. “보통 10세 이전에는 사라지게 된다.”⁴⁰⁾ 이 표현들이 바로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마음이며 생각이다. 이 그림으로 그 어린이들의 천진난만한 마음을 보관할 수도 있을 것만 같다.

2. 색채 표현의 특징

유아는 색채를 손에 잡히는 대로 사용하기도 하며 사실적인 것보다는 느낌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에 나타난 색채에 관심을 가지고 유아의 그림을 연구한 학자들은 그림에 표현된 색채가 유아의 생리적 조건, 심리적 감정, 정서의 표출에 반영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래서 심리적인 색을 사용할 줄 아는 유아기에는 어떤 색을 칠할 것인가를 지시할 필요는 없다. 이는 창의적인 표현을 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신기하게도 유아들은 어울리는 색을 잘 선택해 낸다.

우리도 때로는 집안에 변화를 주고, 마음에 든 물건이나 옷을 고를 때에 심리적인 작용에 따라 어떤 색을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화가는 마음의 색으로 그림을 그리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색채는 유아의 감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밝고 선명한 색깔을 주로 쓰는 유아는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명량한 편이며, 어둡고 칙칙한 색을 많이 쓰거나 화면을 더럽힌 경우는 유아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화가 났을 때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개인의 특수성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이는 불변의 감정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들은 화가 난 일도 금새 잊고, 노는 일

40) 이규선 외(1994), 「미술교육학 개론」, 교육과학사, p.159.

에 열중하기도 잘하기 때문이다.

1) 색과 인성

어린이들의 성격도 자주 접하는 옷의 색이나 장난감의 색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빨강은 혈압·맥박의 수·호흡·피부 반응(땀)을 높이고 뇌파를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⁴¹⁾고 했다. 엄마가 빨간색이 좋다고 옷이나 장난감의 색을 거의 빨간색으로 마련해 준다면, 그 어린이는 눈이 쉽게 피곤하고 성격도 과격하거나 불안해 할 수 있다.

다음은 김재은과 임형진의 ‘색깔과 인성 요인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이다. 이 결과를 ‘표3’을 통하여 살펴보자.

표3. 색깔과 인성 요인과의 관계

그룹형태	색깔과 인성 요인과의 관계
일반적인 활동성	남아에서 파랑, 초록, 황토, 검정, 고동, 노랑, 주황, 빨강, 보라 등을 비교한 결과 어떤 의미는 없었음. 파랑은 일반적으로 활동성이 높은 유아는 즐겨 쓰지 않는다.
정서적 안정감	주황색을 좋아하는 남아들은 노랑·검정·황토·초록·파랑을 좋아하는 유아보다 훨씬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으며 여아는 고동색 계통이 안정되었음.
지배성	남아는 주황색을 좋아하는 유아가 더욱 지배적이며, 여아는 고동·초록 등이 지배적이었음.
충동성	주황보다는 황토색을 쓰는 유아가 더욱 충동적이며 여아는 빨강·노랑을 들 수 있음.
사려성	색채간의 큰 변화는 없으나 여아의 경우 보라·파랑·녹색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음.
사회성	남아의 경우 초록·주황을 좋아하는 유아가 사회성이 높으며 여아는 빨강·초록 등의 경향이 있음.

자료 : 이정환(1997), 「유아교육의 통합적 미술교육과정」, 창지사, p.68.

김재은과 임형진의 연구를 바탕으로하면 소극적인 男兒에게 주황색의 옷을 입혀서 심적인 안정과 정서적인 안정을 꾀할 수도 있다. 그리고 파버 비

41) 파버 비렌(1996), 「색채의 영향」, 시공사, p.40.

렌은 주황색은 색중에 완전한 색이라고 했다.

미국의 색채 학자인 체스킨(L. Cheskin)은 색의 성질에 관한 무지는 국가나 개인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힘주어 말했고, “파버 비렌(Faber Birren)도 지적인 것처럼 심리나 생리, 남녀 이성간의 결정의 차이가 있다”⁴²⁾고 결론지었다. 그러면 어린이들의 그림이 상황에 따른 선·형태·색상의 변화는 어떠한지를 ‘표4’를 통해 살펴보자.

표4. 상황에 따른 선·형태·색상의 변화

상 황	선	형 태	색상
슬프거나 화가 났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하며 단순하다. * 물체의 선을 힘을 주어 긋는다. * 상하 또는 좌우로 속도감 있게 긋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디며, 단순하게 처리한다. * 형태를 한쪽으로 몰아 그리는 경우가 많다. * 형태를 뭉개는 경우가 있다. 	검정 주황 회색 빨강 파랑
물체의 형태와 그리려는 대상을 설명해 주었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냘프고 조심스럽게 긋는다. * 너무 힘이 없다. * 소심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쁘고 깨끗하게 그리려고 노력한다. * 형태의 표현에 의지력이 나타난다. 	하늘색 살색 분홍 연보라 회색 초록
가정이나 부모에 대한 불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적으로 선이 강하다. * 반면 선이 흐리고 연약한 경우도 있다. * 단순하다. * 선이 잘 끊기며 점선을 많이 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를 뭉갠다. * 너무 아래로 내려 그린다. * 지나치게 한쪽으로 또는 아주 작게 그린다. * 형태가 작거나 강한 색상으로 그리는 경우가 있다. 	검정 빨강 진보라 회색 혼색 (가끔)

자료 : 정대식(1991), 「아동미술의 심리연구」, 미진사, p.51.

위의 ‘표4’에 나타나 있듯이 어린이의 그림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용하는 색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에 있어서 선은 형과

42) 박현일(1996), 「어린이 그림 지도 방법론」, 생활지혜사, p.29.

더불어 인간의 미적인 감정이나 성격의 특성이라든지 인격을 반영하지만, 색채는 인간의 심층에 숨어있는 감정을 자극한다.

인간이 몇 가지 색이나 모든 색을 좋아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것이다. 한 가지 색만을 유아에게 제공해서 답답함을 느끼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과도한 자극이 고통을 야기한다면 극심한 단조로움도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이다”.⁴³⁾ 그래서 다양하고 적당한 색을 알맞는 톤(tone)으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린이의 심리적·정서(情緒)적인 안정에 도움이 된다. 유아가 어떤 색으로 자주 그림을 그린다는 것으로 유아의 성격을 파악하려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한 어린이의 그림을 100~200장의 그림을 관찰해 보아야 어떤 이야기를 찾을 수 있게 된다”⁴⁴⁾고 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뮌헨의 논리심리학회 이사인 에텔(Henner Ertel)은 주황색이 사회적 행동을 개선시키고, 인간을 즐겁게 하며, 적개심과 성급한 성격을 줄인다는 것을 알아냈는데 이에 관해서는 파버 비렌이 입증한 바가 있다. 우리들은 마치 우리가 걷기 위하여 다리를 사용하는 법과 말하기 위해서 혀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것처럼 제대로 보기 위해서 눈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2) 관련활동 제안

색을 택하고 적당한 톤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은 3세 전후부터 호기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세까지는 주로 形을 보고, 3세에서 5세까지는 색에 관심을 가지며, 6세부터는 다시 形을 더 중요시한다⁴⁵⁾고 했다. 그러므로 6세 이전에 색깔을 마음대로 선택해 볼 수 있는 크레파스나 물감과 색종이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3) 파버·비렌(1996), 「색채의 영향」, 시공사, p.58.

44) 이정환(1997), 「유아교육의 통합적 미술교육과정」, 창지사, p.66.

45) 루돌프 아른하임(1986),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역, 홍성사, p.434.

⇒ 유아의 한쪽 손바닥에 빨간 물감을 묻혀서 흰 종이위에 찍는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노랑 물감을 묻혀서 종이위에 찍었다. 다음에는 두 손을 마주 잡아서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이도록 하고는 다시 종이위에 찍으면 주황색이 됨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혼합으로 색의 변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도록 유도를 했더니, 그 어린이의 엄마는 “집에 와서 자랑스럽게 설명을 했다”고 기뻐하였다.

유아기에는 그림의 바탕에 색칠하기를 싫어했다. 그러나 파레트에 10가지 색 정도의 물감을 짜서 마련해 뒀다가 붓, 물통을 함께 준비해 주니까, 어린이들은 자기가 먼저 물감을 칠하고 싶어 했다. 이렇게 마련된 파레트의 색을 자주 칠하고 섞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림 그리기에서처럼 같은 단계를 거치 듯이 물감 적신 붓을 사용하는 기술을 배우게 되는 것”⁴⁶⁾이라고 했다. 색깔만으로도 유아는 재미있어서 만져보고 칠하고 싶어한다. 무작정 칠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동기유발을 시키며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46) 이정환(1997), 「유아교육의 통합적 미술교육과정」, 창지사, p.36.

IV. 1950년 前後와 20세기말 유아들의 미술표현

1. 1950년 전후의 미술표현 발달단계 연구

1930~40년 이전에는 미술교육에 관한 연구가 거의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로웬펠드의 초기 저술 역시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심리학적 접근의 미술교육론이다”.⁴⁷⁾ 미술교육에서의 이런 심리학적 전통은 그 뒤에도 계속되었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미술교육 방법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행동 과학적 개념을 미술 지도에 적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1960년대 이전과 이후의 문헌 사이에도 성격 및 체계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60년대 이후는 교육학, 교육 심리학, 교과 교육론 등에서 이론을 도입하여 미술교육론의 체계화와 지도 방법의 심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아이스너(E. W. Eisner)는 교육 과정학자요 미술가로서, 미술 감상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1972).

아이스너는 로웬펠드의 실기 중심과 창의성 중심의 교육 방법에 한계를 느끼면서 구조적(構造的)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는 교사의 역할과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사의 실기능력 뿐만 아니라 미술 비평가 미술사, 문화, 미학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인이여야 한다고 했다. 아이스너는 1994년 8월에 서울에서 “21세기 학교 미술교육의 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이를 계기(契機)로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에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47) 김춘일(1989), 「미술교육론」, 기린원, p.33.

1) 로웬펠드의 구분 연구

로웬펠드(V. Lowenfeld)의 연구는 어린이 미술을 분석하고 분류하려는 가장 광범위한 노력의 하나이지만 정확한 기록과 문서화가 결여(缺如)되어 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다. 50년이면 강산이 다섯 번은 변한 짧지만은 않는 세월이다. 그리고 50년 전의 어린이와 지금의 어린이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도 차이가 나게 달라졌다는 것은 누구나가 느끼고 인정하는 점이기도 하다. 그 차이점이 미술에도 나타나 있을 것 같았다. 그림은 지적 수준이나 감정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니깐.

로웬펠드는 어린이 미술을 6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난화기(2~4세), 전도식기(4~7세), 도식기(7~9세), 사실 여명기, 의사실기, 결정기이다.

“(1) 난화기 (Scribbling stage ; 2-4세)

최초의 자아표현의 단계인데, 마구 그리는 난화기와 조절된 난화기, 이름 붙이는 난화기로 구분하였다. 초기의 맹목적 난화는 반복적 동작의 통제에 의해서 팔운동과 시각행위의 협응을 높여 나아간다. 그려진 형상과 외계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고, 눈 앞에 없는 대상과 사건을 그릴 수 있음을 알게 되며, 그려진 형태에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또한 난화기의 선화(線畵)는 개념과 느낌의 기록이 된다. 線畵는 눈 앞에 없는 대상, 사건, 즉 읽기능력에 기초가 되는 상징체계에 대한 시각적 기억력을 보여 주는 것이다. 색채는 의식적이기 보다는 손에 잡히는 대로 칠한다.

(2) 전도식기 (Pre-schematic stage ; 4-7세)

무의식적인 표현 과정으로부터 점차 의식적인 표현 과정으로 옮겨지는 상징적 도식의 기초단계로서 이 시기에 표현은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반영'이다.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색을 택하기 시작한다. 어떤 대상의 색채와

는 사실성과 무관한 주관적인 색채를 칠한다.

(3) 도식기 (Schematic stage ; 7-9세)

이 시기는 형태 개념을 성취하는 단계로 독자적인 표현이 나타나며 도식적인 그림을 그리는 시기이다. 사물의 개념을 습득하는 시기이다.

사물의 특징을 객관화 시키려는 노력이 엿보이며, 인물이나 사물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서 자주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다. 공간 개념이 싹트기 시작하며, 땅과 하늘을 상징하는 기선(基線)을 긋는다(그림 45·46).

(4) 사실 여명기 (Gang age ; 9-12세)

도식적인 표현에서 탈피하여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묘사로 접근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시각(視覺)과 지각의 발달로 거의 객관적인 상태에서 사물을 관찰하며, 주위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그림을 그리는 데는 대담성이나 자신감을 점차 잃어 가는 경향이 있다.

(5) 의사실기 (Pseudo-naturalistic ; 12-14세)

아동은 지각이 발달하여 논리적 사고가 증대한다. 모든 묘사에 운동감이 많아지며, 3차원적 표현이 가능하다.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그리는 시각형과 느낌과 감정을 그리는 비시각형으로 나누어진다. 그림이 잘되는 아동과 잘 안 되는 아동으로 확연하게 갈라진다.

(6) 결정기 (Adolescent art in the high school ; 14-17세)

진정한 의미의 창조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그림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 힘들다.”⁴⁸⁾

★. 연령별 비교)

① 요즘은 3세의 유아는 이름 붙이는 난화기에서 벗어나 무언가를 보고 그리기를 스스로 좋아하며 즐겼다(그림 19).

② 4세이면 엄마하마와 아기하마의 크기를 인식해 차이가 크게 다른

48) V. 로웬펠드·W.L. 브리테인(1993),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역, 미진사, pp.98~269.

표현을 했다(그림 39). 그리고 공룡을 그려도 뒤에 있는 공룡의 보이지 않는 부분은 그리지 않는 의도적인 그림을 그렸다(그림 38·40).

③ 5세 정도면 원하는 것을 색종이나 지점으로 만들기를 즐기며, 뛰거나 달리거나 생각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표현하기도 했다(그림 49).

로웬펠트는 이 시기의 아동들에게 가능한 많은 경험을 가지게 하고 있는데 이는 그림을 그리는 데 대한 '동기유발'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로웬펠트의 아동미술 발달단계 분류는 1950년 경의 연구는 그 시대의 정서적·지적인 경향이 반영된 그림을 분류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때는 컴퓨터도 없었고 컬러 T.V도 없었다. 요즘 쏟아지는 정보에 비하면 소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였다. 그 때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이다. 50년의 차이는 문화와 사고(思考)의 차이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미술표현에도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2) 버트(Burt, S.C.)의 구분 연구

금세기 초에 선묘(線描)의 발달단계를 발표한 바 있는 버트(1922)의 단계 구분과 로웬펠트의 연구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나이와 형태 특징의 연결이 연구자마다 각각 다르다는 점이 주목된다(그림 32).

버트는 난화기(2~4세), 선묘기(4세), 묘사적 상징기(5~6세), 묘사적 사실기(7~8세), 시각적 사실기(9~10), 억제기, 예술적 부활기(15세 이후)라고 7단계로 분류했다.

“(1) 난화기 (Scribble ; 2~4세)

난화기 아동들을 발달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누었다.

가) 목적이 없는 난화

무엇을 그리겠다는 뚜렷한 목적도 없이 선을 긋는다. 이때, 근육 운동은 어깨에서 시작하여 팔 전체를 포함한 것이며, 헤엄치듯이 그린다.

나) 목적이 있는 난화

연필 끝에 관심을 가지고 사물을 그려 나간다.

다) 모방적인 난화

관심있는 것을 모방하며 그린다.

라) 국부적인 난화

관심있는 사물의 특정 부분을 열심히 묘사한다.

(2) 선묘기 (Line ; 4세)

시각 조절이 어느 정도 진보되는 시기이며, 사람의 형태를 주로 그린다. 이때, 인물의 얼굴은 원으로, 두 눈은 점으로, 다리는 두 선으로, 몸통은 둘째번 원형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3) 묘사적 상징기 (Descriptive symbolism ; 5-6세)

아동들이 좋아하는 특정한 양식에 장기간 집착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상징적인 그림을 그린다.

(4) 묘사적 사실기 (Descriptive realism ; 7-8세)

시각적인 그림보다는 개념적인 그림을 즐겨 그린다. 즉, 눈으로 실제 본 것을 본인의 경험대로 소화시켜 정면과 측면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림도 그린다.

(5) 시각적 사실기 (Visual realism ; 9-10)

기억이나 상상을 주로 그리는 시기를 지나 주위 환경 및 자연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그리려는 단계로 접어든다. 투시적 표현이나 원근법이 시도되며, 풍경화를 즐겨 그린다.

(6) 억제기 (Repression ; 11-14세)

미술 표현이 침체되고, 그리는 대신에 언어적 매체에 흥미를 느낀다. 인물보다는 자연 풍경이나 과학적인 소재 등을 즐겨 그린다.

(7) 예술적 부활기 (15세 이후)

예술적 재능을 꽃 피울 수 있는 시기이며, 남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여아(女兒)는 색의 선택이 다양해지며 장식적인 그림을 즐긴다.”⁴⁹⁾

★ 연령별 비교)

① 요즘 어린이들이 목적이 없는 난화는 2세 이전에 거의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었다(그림 11·12). 그리고 2세에는 목적 있는 난화를 주로 그렸다(그림 13).

그리고 모방적인 난화는 2세에 그린다고 볼 수 있었다(그림 13·14). 국부적인 난화는 3세 전에 나타나고 있었다(그림 14).

② 4세에는 목을 그리고 몸과 다리를 구분해 표현했으며, 손가락은 여러개와 발의 형태를 그렸다(그림 33·34).

③ 요즘 유아들이 특정한 양식에 집착하는 경우<묘사적 상징기>는 3세였다(그림 39·40).

버트는 난화기를 목적이 없는 난화와 목적이 있는 난화로 섬세하게 구분하려 했지만, 모방적인 난화와 국부적인 난화로 초기의 낙서를 4세까지나 광범위하게 정하면서 유아의 그림을 그저 낙서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요즘 유아들은 2세에 버트가 주장한 선묘기에 들어서고 있어서 그 차이는 2년이나 되었다(그림 14). 그리고 기억이나 상상화를 그리며 주위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려는 시기<시각적 사실기>는 요즘 유아에게는 5세 정도에 나타나고 있어서(그림 43·49·50) 이는 4~5년이라는 큰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버트의 분류가 1922년 경으로 지금부터 약 75년 전의 연구라서 그런것 같다.

49) Read, H.(1958), 「Education through Art」, Faber & Fabver, London, pp.18~119 ; 김 정(1993), 「미술교육총론」, 학연사, pp.116~118에서 재인용.

3) 로다 켈로그(Rhoda Kellog)

로다 켈로그(1951, 1970)는 30~40개월 안팎의 유아들의 무의식적 표현을 수집하여 구도를 조사했다. 그런데 낙서는 처음에 점찍기로부터 시작해서 자연 대상을 알아 볼 만한 상징적 도식적 형태로 표현하기까지는 묘화능력의 순차적인 전개의 증거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켈로그는 그림의 기본 형태 단계(2세 전후), 단순 도형 단계(2~3세), 디자인 단계(3~4세), 초기 그림 단계(4세 이후)로 나누어 분류했다.

“(1) 그림의 기본 형태 단계(Pattern stage) ; 2세 전후

2세를 전후로 점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선들과 불완전한 원에 이르기까지 20가지의 종류로 초보적인 낙서를 한다(그림 28).

이 20가지의 낙서는 아동화의 기초가 되고 유아들의 작업에 대해 자세하고 광범위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2) 단순 도형 단계(Shape stage) ; 2~3세

3세 경의 유아들은 단순한 선에 또 다른 모양을 붙여서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데, 이를 기초 도형(emergent diagrams)이라 하고 선들이 교차하여 생기는 십자선, 사다리꼴, 사각형 등으로 분류하였다.

(3) 디자인 단계(Design stage) ; 3~4세

기초 도형이 이루어지면서 유아의 그림은 사각형, 원형, 삼각형, 십자, 대각십자 등의 다섯가지의 기하학적 형태와 불규칙한 형태(일종의 다양한 폐곡선)를 포함한 여섯가지의 기본적인 도형(diagrams)을 만들어 간다고 하였다.

또한 맞붙는 사각형이라든지 분리된 사각형든지 두 개의 도형이 함께 나타난 것을 연합(combinations)이라 하는데(그림 29), 낙서가 진전됨에 따라 차츰 선구성의 체계가 이론적으로 잡혀가게 된다.

집합(aggreatates)은 셋이나 그 이상의 도형단위로서, 2~3세에도 가능

하며 복잡한 것은 3~4세에 이루어진다(그림 30).

(4) 초기 그림 단계(Early pictorialism stage) ; 4세 이후

만다라형에서부터 시작하여 태양형, 방사선형을 거치면서 점차 인물의 형태를 이루어 나아간다고 보았다(그림 31).⁵⁰⁾

20개의 기본 낙서 패턴을 결합(combine) 또는 집합(agglomerates)해서 6개의 기본 디자인(형상) 즉 십자, 사각형, 원, 비정형적 형상, 대각 교차선 등을 산출시키며, 이후 곧 자연대상을 어렵듯이 알아볼 수 있는 상징적 표현(올챙이식 인물 표현 등)이 시작된다는 것이다(그림 27).

요컨대, “켈로그는 어린이의 회화적인 표현들은 근본적으로 근육 운동적 반영으로 나타난 초기의 단순한 낙서적인 기본 디자인들로부터, 필요한 요소들이 결합 추가되어 점점 복잡한 형태로 ‘진화’한다는 것이다.”⁵¹⁾

★ 연령별 비교)

① 켈로그는 ‘20가지 그림의 기본 형태 단계’는 미술 활동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보았으며, 유아의 그림에 일련의 다양성과 연계성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그림 28).

② 단순한 도형 단계나 디자인 단계를 4세까지로 보고 4세 이후에 초기 그림 단계로 들어간다고 켈로그는 보고 있었다. 그러나 요즘 어린이들은 2세 정도면 초기 그림 단계로 접어 든다고 할 수 있었다(그림 14).

켈로그(1951, 1970)는 연령의 발달과 관련짓는 일보다도, 어린이의 미술표현이 가지는 독특한 ‘내적인 논리’ 즉 형태 발달의 특수한 메커니즘(mechanism)⁵²⁾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유명하다. 예컨대, 그는 주로 2~4세 어린이의 10만매 이상의 ‘낙서’를 분석하고, 여기서 20개의 ‘기본 패

50) Roda Kellog(1969), 「Analyzing Children's Art」, California Palo Alto : National Press Books, pp.14~123. ; 김현옥(1991), “유아의 그리기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pp.11~17에서 재인용.

51) 차동채·김춘일(1996), 「아동미술의 지도와 이해」, 미진사, p.224.

52) 메커니즘 : ('기계 장치'라는 뜻). 사물의 작용 원리나 구조. [컴퓨터의 ~].

턴'을 추출하였다. 이는 유아의 낙서를 또다른 시각으로 살펴본 재미있는 분석이며, 낙서를 무심코 지나쳐 버리지 않는 좋은 관찰이었다.

4) 1970-80년대 김 정의 구분 연구

김 정의는 한국 어린이들의 그림을 연구해 서양 어린이와 다르다는 것을 발표했다. 본 논문은 김정보다 20년 후라는 것을 감안하고 어느 정도로 표현 방법이 변화되었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김 정의는 신생아기, 난화기, 전도식기, 도식기, 여명기, 의사실기, 사춘기라고 7단계로 분류하였다.

“(1) 신생아기(新生兒期 ; 1-3세)

우리 나라의 아동은 서양보다 묘화 행위가 일찍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 어린이들은 연필을 입에 대기도 하지만 무엇인가 그리려고 한다. 물론, 묘사 행위는 불가능하지만 성장 과정으로 의미가 있다.

(2) 난화기 (亂畵期 ; 3-5세)

그림과 낙서가 동시에 뒤섞인 형태로서 그림이라기보다는 낙서에 비중이 더 가는 시기이다. 그러나 유아에 따라서 꽤 많은 그림을 진지하게 그리는 경우도 있다.

(3) 전도식기 (前圖式期 ; 5-7세)

그림을 의식적인 표현으로 그린다. 상당한 흥미를 수반한 그림 제작이 이뤄지며, 자신과 객체가 일치되는 경향을 보인다. 아직 공간 개념, 원근 관계, 대소 관계 등이 무시된 채 주관적인 사고에 의해 그려지고 있다.

(4) 도식기 (圖式期 ; 7-9세)

이 시기에는 사람과 사물에 대해 일정한 개념을 찾아 낼 수 있는 능력과 판단이 생기므로 독자적 표현이 나온다. 사물의 외면과 내면의 형태 묘사가 시도되고, 상징성이 후퇴하며, 점차 객관적 사실에 접근하려는 노력

이 보인다. 그러나 표현성에 유연성을 상실하기 쉬운 이유는 주관과 객관의 틈바구니에서 고민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5) 여명기 (黎明期 ; 9-11세)

도식화 되었던 기하학적 선묘법으로부터 객관적이며 사실적인 묘화로 접어드는 시기이다. 지극히 리얼리티(reality)쪽으로 빠져 들어가려는 경향이 강하다. 시각과 지각의 발달로 사물의 형태를 잘 알게 되는 반면에 그림을 그리는 데 자신감이 떨어져 간다.

(6) 의사실기 (擬寫實期 ; 11~13세)

이 시기에는 거의 리얼리티한 그림을 그린다. 사물과 닮지 않았으면 곧바로 못 그렸다거나 포기하는 상태로 급변하는 시기이다. 지각이나 논리적 사고만큼 그림이 따라 주지 않고 그림에 대담성이 없어지기 쉽다.

(7) 사춘기 (思春期 ; 13~16세)

자신의 그림에 대해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게 된다. 풍부한 상상력이 거의 쇠퇴하고 저질스러운 그림 형태가 나온다. 만화에 가까운 그림을 그린다. 그러나 다른 그룹의 아동들은 어른이 흉내처럼 제법 기법상의 여러 조건을 터득하느라 노력하기도 한다.⁵³⁾

★ 연령별 비교)

① 김 정이 분류한 신생아기는 요즘 어린이에게는 2세 이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그림 1). 그리고 3세면 다양한 관심을 갖고 인물과 사물·동물을 즐겨 그렸다(그림 21·22·24).

② 4세 후반기부터는 낙서보다는 형태로서의 표현을 더 많이 그렸다(그림 27·28).

김 정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우리의 정서에 맞는 지도방법을 찾아내리라 본다.

53) 김 정(1993), 「미술교육총론」, 학연사, pp.118~120.

이제까지 각각 다른 연구자의 분석을 살펴 보았다. 위의 연구에서 유아미술 표현 발달단계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표5'와 같았다.

표5. 유아미술 표현 발달단계 특징비교

로웬펠드(1950)	버트(1922)	켈로그(1951-70)	김정(1970-80)
난화기(2-4세) ; 초기의 맹목적 인난화와 반복적인 난화로 최초의 자아표현단계. <선화, 색채는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난화기(2-4세) ; 목적없는 난화와 목적있는 난화, 모방적인 난화, 국부적인 난화로 분류. 선묘기(4세) ; 인물의 두 눈을점으로, 다리는 두 선으로, 몸통은	기본형태단계(2세전후) ; 20가지의 종류의 초보적인 낙서. 단순도형단계(2-3세) ; 선의 교차로 십자선 · 사다리꼴 · 사각형 등을 표현.	신생아기(1-3세) ; 낙서가 성장과정으로 의미있음. 난화기(3-5세) ; 많은 그림을 진지하게 그린다.
전도식기(4-7세) ; 공간질서는 없어 도 자기의 생각은 상징적으로 표현 <색채는 사실적인 않아도 주관적으로 택함>	둘째번 원형으로 표현 묘사적 상징기(5-6) 좋아하는 특정한 양식을 장기간 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상징적인 그림을 그린다.	디자인단계(3-4세) ; 선구성의 체계가 이론적으로 잡힘. 초기그림단계(4세이후) ; 인물의 형태를 이루어 간다.	전도식기(5-7세) ; 의식적인 표현으로 주관적인 사고에 의해 그린다.

여기서 어린이들의 미술표현이 연구자나 시대에 따라 달랐지만, 그래도 시대적인 차이가 더 뚜렷함을 볼 수 있었다.

유아미술 표현 발달단계를 각각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시각으로 분류 했지만, 대체적으로 3~4세부터는 선묘기에 들어서서 전도식기라고도 하는 최초의 그림이 시작된다는 생각은 '표5'의 연구자마다 비슷했다.

그렇다면 1920년대부터 1960~70년대까지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40년대까지는 심리학적인 연구나 아동학자에 의한 연구로 어린이 미술이 미술학적인 분석이 많지 않았던 까닭도 있는 것 같다.

또한 방임적인 미술교육 방법이 1960년 이후부터는 기본적인 것은 가르치자는 의도된 미술교육 운동이 확산되면서 어린이들의 미술표현도 달라지고 있었다.

그래서 1950년대와 요즘 유아들의 미술표현과는 대체적으로 2~4년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20 세기말 유아들의 표현 발달단계

(1995년~1997년까지)

표현 못지않게 감상과 이해도 중요하다. 미술활동은 창조·감상·이해의 세가지 과정의 종합으로 이루어지며, 미술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좋은 표현도 가능하다.

지난 7년 동안 어린이들을 지도하면서, 내 아이를 지켜 보면서 어린이들의 미술 표현력에 감탄을 한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어린이들은 사물에 대한 흥미나 호기심이 예상 외로 커서 간혹 어른들을 놀라게 한다. 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는 자기의 일을 자연스럽게 천진스럽게 처리하는가 하면 대단한 집중력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진지함도 보여준다.

유아들의 그림이 정상적인 시기를 앞섰다고 좋은 그림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순수성과 독창성이 표현되고 있을 때 좋은 그림이라 할 수 있다.⁵⁴⁾

유아의 생각과 능력을 도외시한 채 기능적인 결과만을 얻으려고 한다면, 유아의 내면 세계를 가꾸고 창의성을 키우는 일은 점점 멀어질 것이다.

우리는 요즘 영재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실천하는 몇 사람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다. 올바른 지도가 아니면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또 어린이의 개인적 기질을 인식하여 지식이나 기술에 치우치지않는 조화로운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1) 1세아<12~23개월>의 표현활동

링(L. Ling)의 연구에 의하면 생후 6개월 이후면 원, 삼각형, 타원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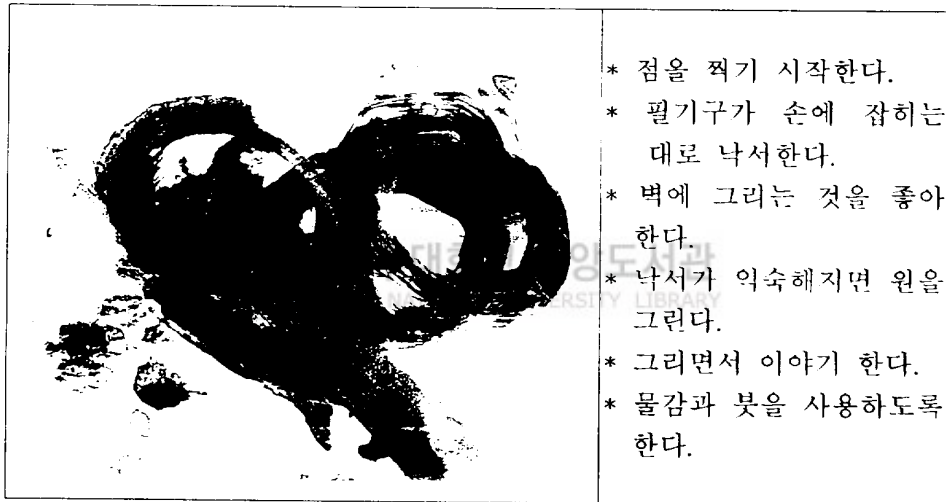
54) 김연숙(1996), "아동미술에 있어서 조형표현의 특성과 현대미술에 수용된 경향 고찰"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p.16.

구별할 수 있는데 이때 각 형의 위치 방향 크기를 변화시켜도 유아는 형태의 지각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손과 눈의 협응동작이 자연스러워지며 활발해져감에 따라 동작의 폭도 넓어 진다. “공을 한 손으로 던질 수 있게 되는 것도 이 시기이다”.⁵⁵⁾

물론 이 보다 늦는 어린이도 있다. 그것은 그 이전의 단계의 진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유아들이 어떤 단계를 실패했는지 모르겠을 경우에도 조금 늦어지기도 했다. 유아는 충분히 즐기고 만족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세아의 미술표현은 다음 ‘표1’과 같았다.

표 6. 1세아의 미술표현(1995~97년)



점찍기에서부터 여러 유형의 낙서를 캘로그는 20가지의 낙서로 나누어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20가지의 낙서는 20세기말 유아에게는 1세 전후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그림 11·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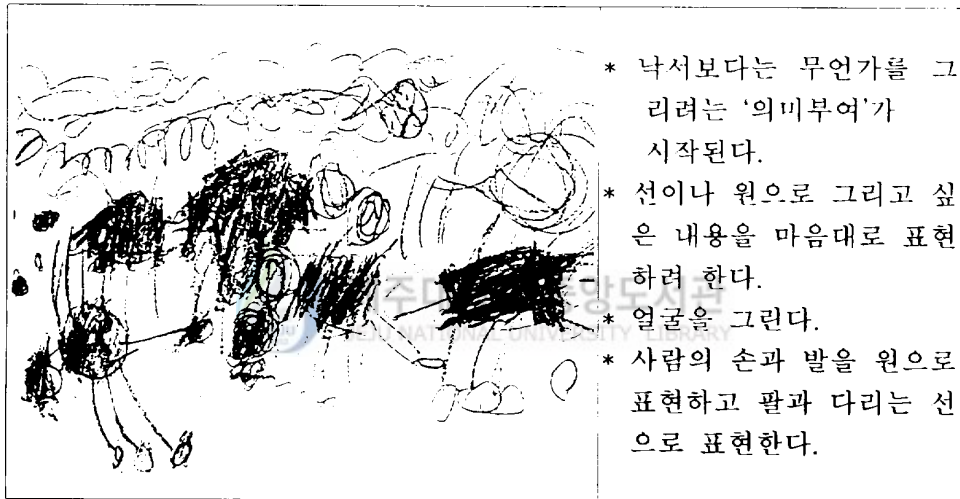
55) 일본예술교육연구소 편(1995), 「0~3세 유아의 그림지도」, 김윤옥 역, 어린이들, pp.17~20.

2) 2세아<24~35개월>

처음엔 못그려서 그려보고 싶은 욕망으로 그려 달라는 재촉도 한다. 그러나 낙서를 이미 시작한지 여러 달이 지났다면 의미 있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그림 16). 그리고 낙서는 자주 하게 된다. 그리고 종이 위에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벽, 방바닥, 책결상, 손등, 책 등에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렸다.

그러면 2세아의 미술표현을 '표7'를 통하여 살펴 보자.

표7. 2세아의 미술표현(1995~97년)



어린이들이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하면 그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얼굴을 그리기도 했다(그림 14). “얼굴은 어린이가 가장 즐겨 다루는 주제이기도 하다”.⁵⁶⁾

그리고 유아들이 그림을 그릴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유아의 스케치북

56) 안영기·김춘일(1990), 「꾸미기와 만들기」, 미진사, p. 210.

에는 그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 다른 종이에 그려준다면 보고 그리면서 관찰력을 기를 수 있다.

2세 정도면 색종이나, 지점토를 허용하는 것도 좋다. 이 시기는 색깔을 구별하는 것을 재미있어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동물을 그려내어 다리 부분을 접어서 세워주면 장난감으로 아주 좋다. 이러한 만들기와 놀이 과정을 통하여 어린이들은 자신이 직접 장난감을 만들려는 의욕을 키워가기도 했다.

3) 3세아<36~47개월>

계속적인 표현을 해온 어린이라면, 작업하려는 의욕이 왕성하게 느끼고, 보이는 대로 다 표현해 버리기도 한다. 때론 해와 달에 눈, 코, 입을 그리고(그림 39), 집과 꽃에는 손, 발까지 그려 놓는다(그림 17, 18). 이것은 그림에 의인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어린이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린다. “이모 아기가 지금 이모 배속에 있는데 그림 하나 그려 줄래”하니까 금새 그린다. 그래서 “잘 그렸어요! 그런데 이모하고 이모부도 그려 줄래요?”하며 조카의 기분이 혹 상해서 안 그려주면 어찌나 하는 마음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건넨다. “알겠어요”하며 쓱쓱 그려냈는데 거기에는 태아와 이모는 따로 떨어져 그려 놓았고 이모부를 그리고는 중앙에는 자기 자신을 그렸다. “아기는 이모 배속에 있는데 배속에 그려야지”하니까 “아니야 밖에 그릴거야” 하는거다. 그 이모는 출산 예정일을 3개월 앞두고 있었다(그림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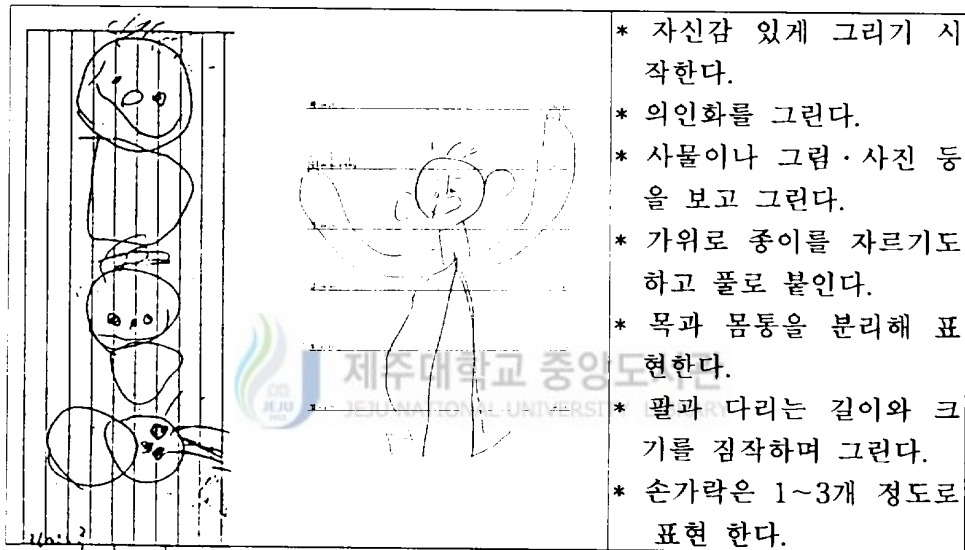
어린이들은 가슴에 의해 느낌을 표현할 줄 알아야 보이지 않는 마음, 기쁨, 고통 등을 직관을 통해 표현하게도 되는 것이다. 예술은 직관을 통해서 이해하는 면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유아의 높은 수준의 직관력을 갖게 하

기 위한 것이 미술교육의 중요한 목표”⁵⁷⁾가 되어야 한다.

3세의 유아들은 보고 그리기도 좋아한다. 만약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면 자랑하기 위해서인지, 기린 한 마리 캥거루, 악어를 그려오더니, 고양이, 사슴도 그려왔다(그림 35·36). “이제 그만하자” 했더니 “아니 더 할거야”하는 거다. 그리고는 3시간이나 그리는 것이었다. 항상 그러는건 아니지만 그 흥미와 그리는 일에 몰두하는 집중력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 3세아의 미술표현을 ‘표8’를 통해 살펴보자.

표8. 3세아의 미술표현



40개월 이후가 되면 여러가지의 색으로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이든 겁없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시기이고 보면, 가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도구를 이용해 종이를 자를 수 있다는 사실이 어린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재미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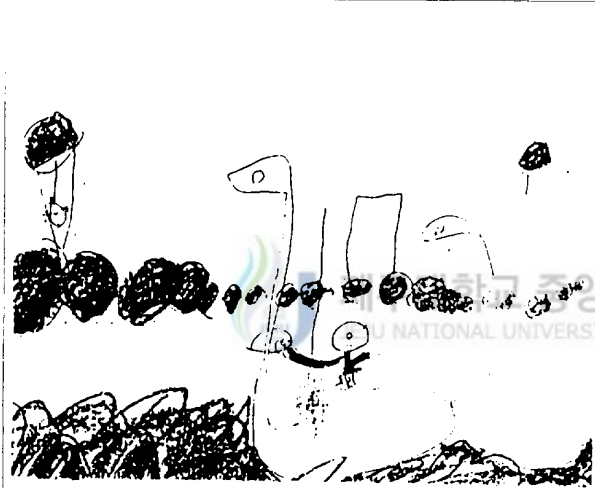
57) 김재은(1992), 「유아를 위한 예술교육」, 샘터사, p.139.

4) 4세아<48~59개월>

우리나라 4세 유아의 발달 결과를 종합한 연구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언어 발달과 '내용 표현' 능력과 '형태 표현' 능력에서 유치원 유아들이 어린이집 유아들 보다 높은 능력을 나타냈다. "소근육 운동 능력 발달은 男兒 보다 女兒가, 시읍면 유아보다 대도시 유아가 더 높은 능력을 나타냈다".⁵⁸⁾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유아들의 정서나 능력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4세아의 미술표현을 살펴보자.

표9. 4세아의 미술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과 사람을 자유자재로 그린다. * 경험화를 그린다. * 동화의 내용이나 상상화를 그린다. * 만들거나 종이 접기를 즐긴다. * 인물을 그릴 때에 손의 형태와 발의 모양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
--	--

2세 전후로 낙서를 시작한 유아라면 4세가 되면 병원에 갔던 일이나 오리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그림을 자유자재(自由自在)로 표현했다(그림 26).

그리고 얼굴을 그리면 얼굴색을 먼저 색칠하고, 머리를 그리고 다시 몸통을 그리면 몸통을 색칠하고 나서, 팔과 다리를 그렸다(원색 그림 8). 이는

58) 이은화 외(1995), 「한국 4세 유아의 발달에 관한 연구」, 창지사, p.56.

線으로 표현하던 유아 그림이 이제는 面으로 그리는 것이다(원색 그림 5·6). 유아들은 “미술활동의 주제가 자아 개념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깊이 있는 ‘자기통찰의 기회’를 갖게 된다.”⁵⁹⁾

이 시기에 색종이를 2세부터 갖고 놀 수 있었던 유아라면 4세 정도가 되면 입체적인 조작이 가능해 지기도 했다.

그림에 있어서는 처음 시작하는 어린이와 2세 정도에서 낙서를 시작한 어린이와의 차이는 크다고 볼 수 있었다. 처음으로 4세에야 시작하는 어린이는 역시 낙서에서 시작된다. 허나 이 시기가 지나 5세가 되면 처음 시작하는 ‘낙서’도 하기 어려워하는 어린이들이 많았다.

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아의 능력에 맞는 지도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가장 훌륭한 교육인 것이다. 그리고 누가 더 잘 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관찰하는 것보다는 유아의 흥미와 관심의 정도에 따라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5) 5세<60~71개월>

5세가 되면 자기 주장이 뚜렷해지고 여러 영역에서 표현 능력이 다양하다(그림 49·52). 그리고 형태 표현이 절정에 이르거나 만들기와 그림에 광범위한 작업의 기회가 있었던 어린이라면 생략적이고 빠른 표현을 즐기기도 한다(그림 48·50).

그리고 인물이나 사물 등을 보고 그리거나(그림 51) 좋아하는 만화 주인공을 즐겨 그렸다(그림 44·49). 그리고 인물을 그릴 때에 손가락 다섯개를 정확하게 표현했다(원색 그림 9)·(그림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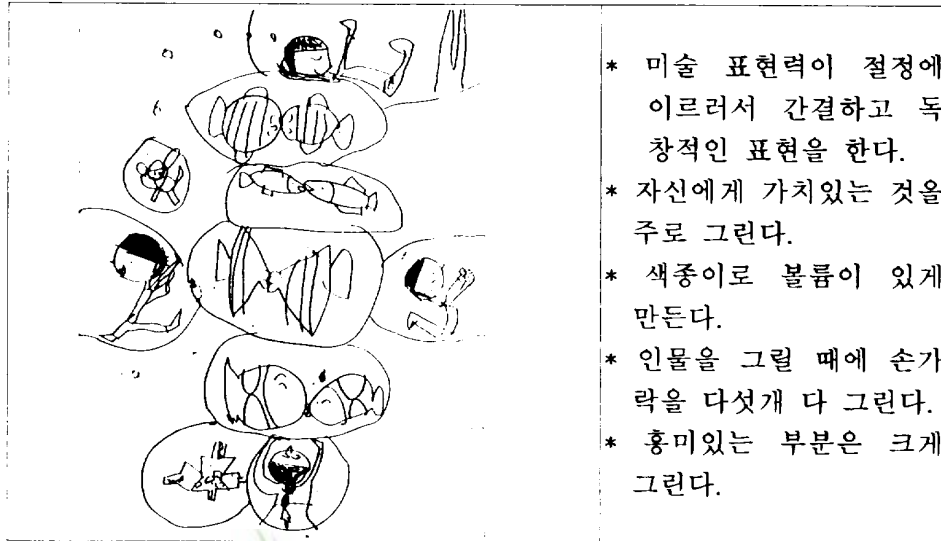
어린이들이 표현이 자유로워지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글도 함께 그리는데 3세 때와는 달리 크기 조절이 가능해 보였다(그림 23·47).

59) 인간발달 복지연구소 편(1994), 「내 마음을 읽어 주세요」, 중앙적성출판사, p.212.

이 시기의 어린이는 색종이로 다리미를 만들어도 세울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볼륨(volume)이 있고 사용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작업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 5세아의 미술표현을 살펴보자.

표10. 5세아의 미술표현



만 5세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어린이도 있어서 자유와 개성을 존중하여, 풍부한 인간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아기는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존 능력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몸과 주체적으로 놀 수 있는 어린이로 키우는 교육이 중요하다. “자신의 충동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곧 타고난 재능을 최고로 실현시키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제조건이다.⁶⁰⁾ 자기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의 충동을 다스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들에게 미술을 표현하면서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

60) 도리스 매틴 · 카린 뷁(1996), 「EQ」, 홍명희 역, 해냄, p.95.

유아미술을 지도할 때에 음악을 들으며, 몸을 기본에 따라 조금 움직이면서 미술작품을 자기 자신 것으로 만들어 보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들은 만 1세가 되면 ‘낙서’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었다. 만약 유아에게 언니나 형이 있는 경우는 2세 정도면 색에 대한 관심과 집과 사람 얼굴을 그리는 유아도 있었다. 이 처럼 빠른 어린이가 있는 것은 10년 전과는 다르게 모빌이나 색다른 옷으로 색감을 일찍부터 익히게 되면서 어린이들한테도 색이나 형태가 더 친밀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유아기의 미술 지도는 30개월부터라면 그다지 늦은 것은 아니지만, 30개월 이전의 미술활동도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유아의 낙서의 시기가 빨라 지면서 유아들의 그림도 전도식기에 이르는 시기도 빨라지고 있었다.

유아가 낙서를 1세부터 시작했다면 전도식기는 3세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낙서가 4세에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다면 전도식기는 5~6세에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술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분석으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을 들 수 있다. 또 하나는 미술은 지도할 필요가 없다는 방임적인 지도법이 계속되었던 이유도 있었다.

아이스너의 의도된 미술 교육이 중요시되면서 미술에서도 기초적인 내용을 가르치자는 것은 학습 내용을 가르치는 학문 교과로 그 위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의도된 미술 교육이 지성과 감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계속 지켜봐야 할 과제이다.

유아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표현력이 풍부한 때라고 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어린이들이 갖는 선이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유아기의 그림은 모아 두는 것이 좋다. 그건 그가 갖고 있는 가장 순결하고 순수한 꿈이 녹아들어 표현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추상 화가들은 바로 이 시기로 되돌아 갔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미술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V. 결 론

지금은 컴퓨터와 인터넷, 텔레비전이 컬러화되고 비디오 등으로 어린이들이 집안에서도 재미있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조기 교육으로 무엇이든 일찍부터 시작하려는 부모의 관심 또한 커졌다. 보는 것이 다양해지고 아는 것도 많아진 것이다.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정서도 변화될 수 밖에 없는데, 그 취향과 기호 또한 각별하고 다양해지면서, 정신적 육체적인 변화도 그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그러므로 미술교육에도 변화있는 지도법으로 현장에서 융통성있게 발휘되어야 할 때라고 본다. 그리고 나이 차이에 따른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1세아부터 5세아까지의 미술표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았다(1995~97년).

첫째로, 만 1세아는 점찍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낙서가 익숙해지면 원을 그리기도 했다. 그리고 붓으로 물감을 색칠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마음껏 낙서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만 2세아는 낙서보다는 무언가 의미있는 그림을 그렸다. 얼굴을 그리며 손과 발은 동그라미로 표현했다. 그리고 사람의 팔과 다리는 선으로 표현했다. 이 시기도 낙서를 즐기며 낙서를 하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 좋다. 낙서는 그리기에 기본이 되며 감정을 다스리고 이해하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로, 만 3세아는 자신있게 그리며 의인화도 그린다. 그리고 사물이나 그림·사진 등을 관찰하며 그리기를 좋아했다.

만 3세 정도면 인물을 그릴 때에 목과 몸통을 분리해서 표현했다. 그리고

손가락은 1~3개를 그렸다. 유아가 그림 그리는 것에 익숙해지면 여러가지 색으로 스케치하기 시작한다.

네째로, 만 4세아는 동물과 사물을 자유자재로 그렸으며 경험화를 그렸다. 그리고 동화의 내용이나 상상화를 즐겨 그렸다.

이 시기에 인물을 그릴 때에는 손가락은 3~6개로 그렸으며 발의 형태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렸다.

그리고 얼굴을 그리면 얼굴색을 먼저 칠하고 머리를 그리고 다시 몸통을 그리면 몸통을 색칠하고 나서 팔과 다리를 그리는 線으로 표현하던 유아 그림이 이제는 面으로 그리는 것이었다.

다섯째로, 만 5세아는 흥미있는 부분을 확대·강조해서 그리기도 했으며 자신에게 '가치'있는 것을 주로 그렸다.

이 시기는 미술 표현력이 절정에 이르러서 간결하고 독창적인 표현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인물을 그릴 때에는 손가락은 다섯개 다 그렸다.

유아미술을 나이별로 조사 분석하면서 낙서는 점에서부터 시작되며 어느 시기 동안은 주로 線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만 4세 정도가 되면 面으로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유아기의 미술지도가 가장 적당한 시기는 30개월 전후라 보고 의도된 미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다.

필자가 유아미술을 7년 동안 지도하면서 체험한 것은 유아기에 30개월 정도부터 그림을 시작한 여자 어린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반에서 그림도 제일 잘 그리고, 공부도 제일 잘 하며 작문도 잘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걸 우연인지 필연인지가 늘 궁금했다.

또 남자 어린이도 역시 초등학생인데 35개월부터 미술교육을 받았는데, 학교생활이 활발하며 적극적이고 반에서는 우등생이었다. 그 후 이런 어린이들을 여러 명을 더 만나게 되었다. 이런 어린이를 둔 부모는 미술 덕분이라며 미술을 높이 평가했다. 가정교육과 미술교육이 어린이한테 잘 맞아 떨어

어진 것 같긴 하지만, 좀 더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아기의 교육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나와야 하고, 육아의 책임을 지고있는 어머니와 교사의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연구로 유아기의 미술표현 능력이 6세~10세가 되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지적·정서적 영향을 줬는지도 연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또한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이런 미술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체계적이고 계획된 프로그램으로 미술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國內書

< 단행본 >

- 강정이(1994), 「엄마와 함께하는 미술여행」, 생활지혜사.
- 권상구(1991), 「아동미술교육」, 미진사.
- 김삼량(1992), 「미술교육개론」, 미진사.
- 김재은(1995), 「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진단」, 서울 ; 교육과학사.
- 김재은(1992), 「유아를 위한 예술교육」 샘터사.
- 김 정(1993), 「미술교육총론」, 학연사.
- 김 정(1993), 「세계의 미술교육」, 예경.
- 김춘일(1989), 「미술교육론」, 기린원.
- 김춘일(1985), 「아동미술론」, 미진사.
- 박금숙 · 이은순(1993), 「아이는 그림으로 말한다」
; 아이의 행복을 위한 미술교육, 여성사.
- 박현일(1996), 「어린이 그림 지도 방법론」, 생활지혜사.
- 성옥련(1992), 「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 심리세계」, 교보문고.
- 오정현(1987), 「미술활동을 위한 유아의 창작공예」, 형설출판사.
- 오종숙(1996), 「유아미술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 이규선 외(1994), 「미술교육학 개론」, 교육과학사.
- 이은화 외(1995), 「한국 4세 유아의 발달에 관한 연구」, 창지사.
- 이인태(1988). 「유아미술지도」, 학문사.
- 이정환(1997), 「유아교육의 통합적 미술교육과정」, 창지사.

- 인간발달 복지 연구소 편 (1994), 「내 마음을 읽어 주세요」,
중앙적성출판사.
- 임경재(1995), 「어린이 미술학교」, 페스탈로치.
- 정대식(1991), 「아동미술의 심리연구」, 미진사.
- 주종근(1995), 「잠재에서 창조로」, 미진사.
- 지혜련·김은기(1994), 「유아의 실외놀이 이론과 실제」, 교문사.
- 차동채·김춘일(1996), 「아동미술의 지도와 이해」, 미진사.
- 최병상(1990), 「환경조각」, 미술공론사.
- 한국인간발달학회 편(1996), 「유아의 심리」, 중앙적성출판사.
- 허혜경(1993), 「창작공예 중심의 유아 작업활동」, 학문사.

< 논문 >

- 강희순(1988), “유아의 미술활동 지도현황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병숙(1981), “취학전 아동의 미적 태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연숙(1996), “아동미술에 있어서 조형표현의 특성과 현대미술에 수용된
경향 고찰”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현옥(1991), “유아의 그리기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현자(1992), “학교색채교육”,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석은조(1994), “유아의 창의적 동작활동이 창의적 그리기 표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수영(1990), “교사의 질문유형이 유아의 그림표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수경(1988), “동작확동이 유아 그림그리기에 있어서 창의적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혜숙(1988), “유아미술 실태조사 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화자(1986), “유치원 미술활동 현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금자(1994), “유아의 창의적 동작활동이 창의적 그리기 표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기타 문헌 >

- 김 정 외(1996), “미술평가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창지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 박철준(1996), “취학전 어린이 올바른 미술지도 방법”, 유아정보 지상강좌 3월호,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과 명예교수.
- 오종숙 외(1997), “조기미술교육”, 라벨르 지상강좌, 3월호.
- 운평어문연구소 편(1992), 「그랜드 국어사전」, 금성출판사.
- 전성수(1997), “선과 색으로 내마음 그리기”, 꿈을 키우는 예능교육 1월호, 청주교대, 한국교원대, 서울교육대학교 강사.
- 한스 다우워(1996), “감각사고력과 창의력 길러주는 미술교육”, 유아정보 12월호, 독일 뮌헨대학(미술교육학 전공)교수.

< 번역 서적 >

- 게라두스 반 데르 레우후(1994), 「종교와 예술」, 윤이금 역, 열화당.
- 니콜라스 웨이스(1996), 「그림으로 만나는 심리학 세계」,
이상훈·이병택 역, 새길.
- 도리스 매틴, 카린 뷁(1996), 「EQ」, 홍명희 역, 해냄.
- V.로웬펠트/W.L.브리테인(1993),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역, 미진사.
- 루돌프 아르하임(1986),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역, 홍성사.
- 루스 보든(1995), 「기초지식 5가지를 재미있게 가르치는 방법」,
백석기 역, 웅진출판.
- M.몬테소리(1991) 「몬테소리의 어린이의 신비」, 홍승혜 역, 미진사.
- 실비 지라르데 외(1996), 「샤 갈」, 최윤정 역, 길벗어린이.
- E.W.아이스너(1995),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 연구회 역, 예경.
- E.W.아이스너(1995), 「학문기초 미술교육운동」, 학지사.
- 일본예술교육연구소 편(1995), 「0 ~ 3세 유아의 그림지도」, 김윤옥 역,
어린이들.
- 재캘린 굿나우(1995), 「어린이들의 그림 그리기」, 광덕영 역, 학문사.
- E.P.코헨/R.S.게이저(1992), 「아동미술교육의 실제」,
서울대미술교육연구회 역, 미진사.
- 파버 비렌(1996), 「색채의 영향」, 시공사.

<Summary>

Analytic Study in Children's Fine Arts

(concentrated on drawings of children aged 1 - 5)

Chung, Min - Sook

Art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Chang-Bo

We're living in a rapidly changing world which is full of irrelevant information. That's why creativity is required in all kinds of fields. It'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creativity is made of positive thoughts in all matters which include loving oneself, nature and human beings.

All human beings build up their own personalities for themselves. It is said that all important factors that affect the spirit and emotions of people are made up when we develop our own personalities.

The study in children's education began in the 1970s after considering that it was necessary. Therefore, the lack of case studies and teaching experience in real situations caused less effects in education. Creativity of human beings is made up in childhood and it is very important to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7.

develop creativity at this time in a person's life. However, we shouldn't be satisfied with teaching methods and children's Fine Arts programs that expand children's potential and creativity as they are now.

In this study, I referred to many related books and, with my experience in teaching children's Fine Arts, I'd like to analyze the works of children of different ages that I've collected since 1995.

There are a lot of gaps in childhood that are caused by age differences and, still in Korea, we're teaching Fine Arts ignoring that fact.

For instance, we're teaching three-year-old children and five-year-old children together with a similar program. That's the reason why children think of Fine Arts as a difficult subject.

Therefore, I've tried to analyze children's works and introduce new teaching methods to make Fine Arts interesting and exciting with a systematic and well-planned program.

I'm sure that effective teaching in Fine Arts at the proper time is really necessary to develop creativity which has harmony with individuality and emotions.

< 원색그림 1 >
4세.남. 무지개



< 원색그림 2 >
3세.남. 바다

< 원색그림 3 >
4세.남. 풍선과 무지개



< 원색그림 4 >
3세,남, 바다와 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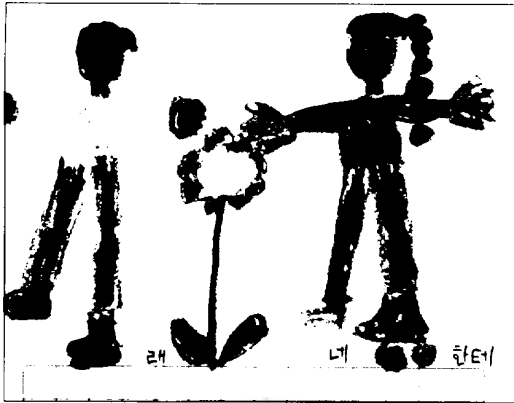
< 원색그림 5 >
3세,남, 우리 마을

도서관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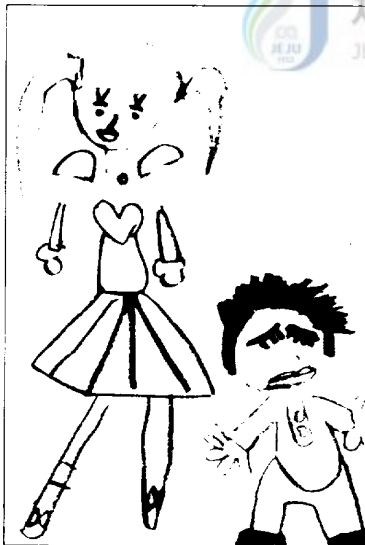
< 원색그림 6 >
4세,여, 눈이 와요



< 원색그림 7 >
5세,남, 돌고래쇼



< 원색그림 8 >
5세,남, 그림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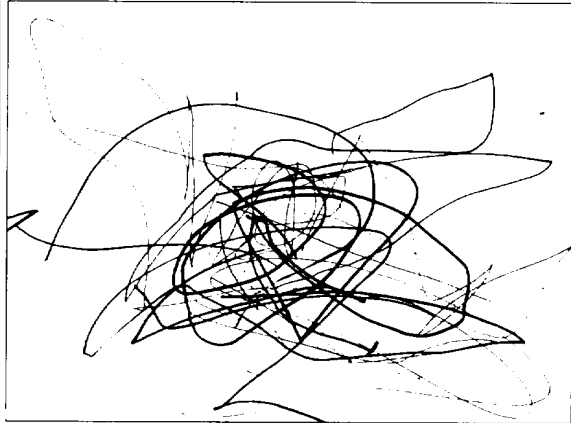
< 원색그림 9 > 5세,여, 동생과 나



< 원색그림 10 > 3세,남, 철봉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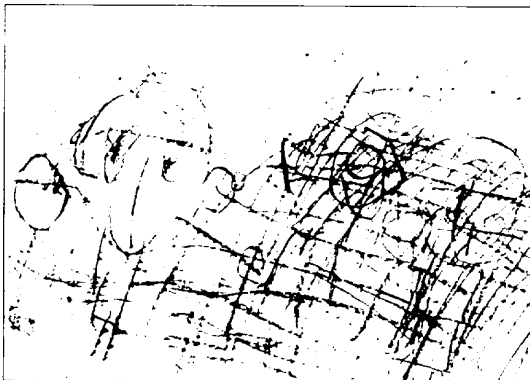
<그림 11>
18개월, 여, 점찍기, 크레파스



<그림 12>
20개월, 여, 난화, 싸인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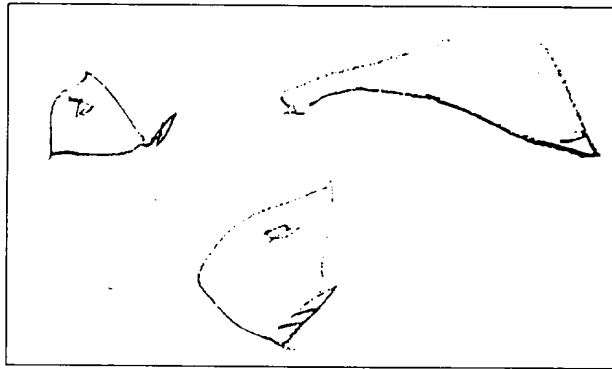
<그림 13>
23개월, 원형, 크레파스와 물감



<그림 14>
2세, 여, 태양과 사람, 크레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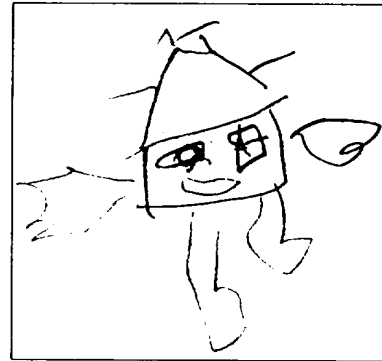
<그림 15>
3세, 남, 사람, 연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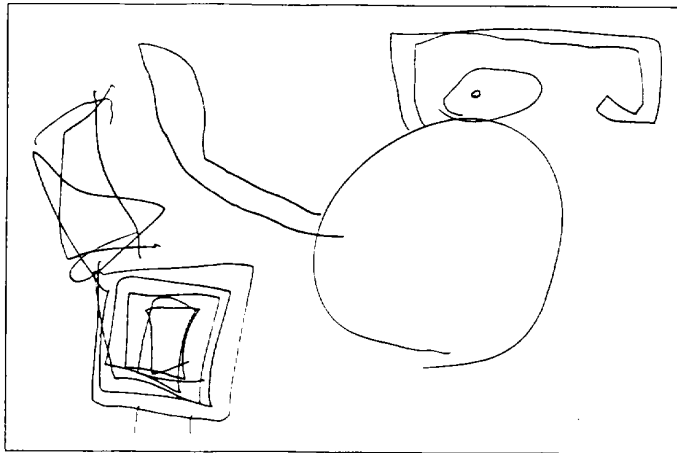
<그림 16> 30개월, 물고기



<그림 17> 3세, 남, 꽃, 싸인펜, "의인화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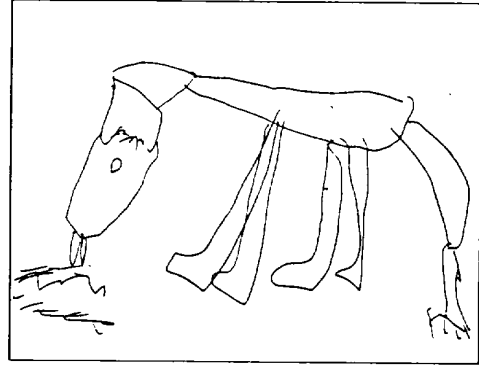
<그림 18>
3세, 남, 집, 연필, "의인화 표현"



<그림 19>
3세, 남, 주전자, 연필,
"정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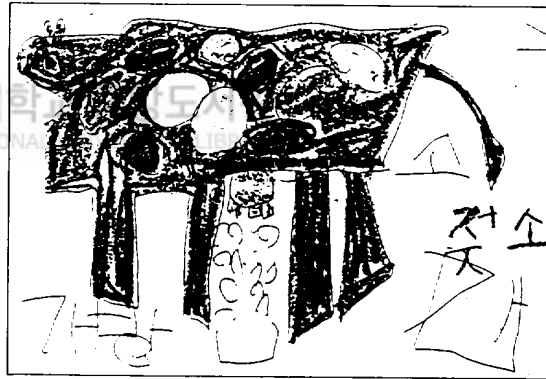
<그림 20>
4세, 여, 친구와 꽃, 크레파스와 물감,
“미분화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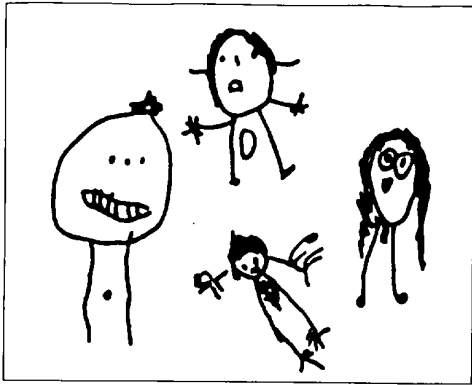
<그림 21>
4세, 남, 말, 볼펜, “보고 그리기”



<그림 22>
4세, 남, 나와 집, 싸인펜과 크레파스,
“강조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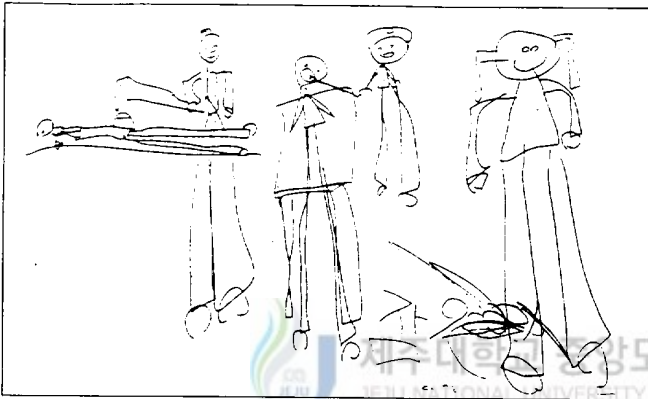
<그림 23>
3세, 남, 젓소, 볼펜과 크레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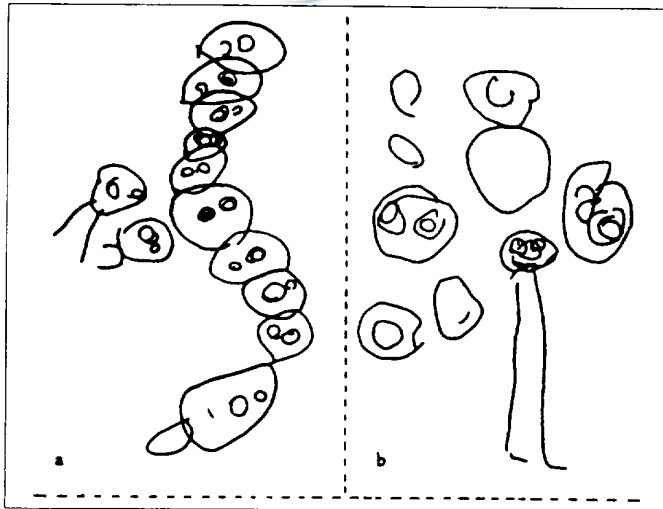
<그림 24> “배꼽이 강조된 표현”



<그림 25> 손바닥 찍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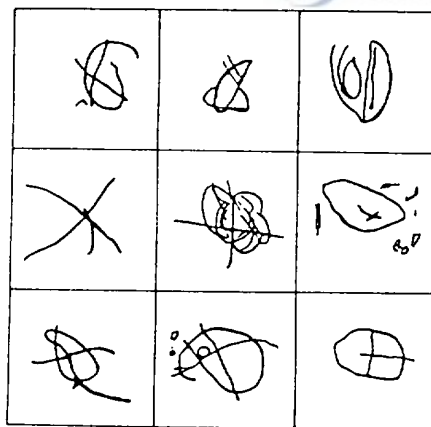
<그림 26>
4세, 남, 이비인후과, 볼펜,
“경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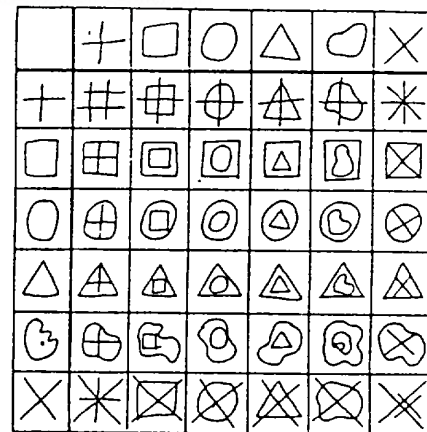
<그림 27>
“울챙이식 인물 표현”

난화 1	· ·	점
난화 2		수직단선
난화 3	—	수평단선
난화 4	∖ /	사선단선
난화 5	∪	곡선단선
난화 6		수직복선
난화 7	≡≡≡	수평복선
난화 8	↘ ↗	사선복선
난화 9	∩ ∪	곡선복선
난화 10	〰	꼬부랑 열린선
난화 11	〰	꼬부랑 닫힌선
난화 12	〰	지그재그선
난화 13	ㄷ	고리단선
난화 14	ㄷㄷ	겹고리선
난화 15	◎	나선
난화 16	◎◎	중복선
난화 17	◎◎	동그라미복선
난화 18	◎◎	퍼지는 원형
난화 19	◎◎	교차된 원단선
난화 20	○	불완전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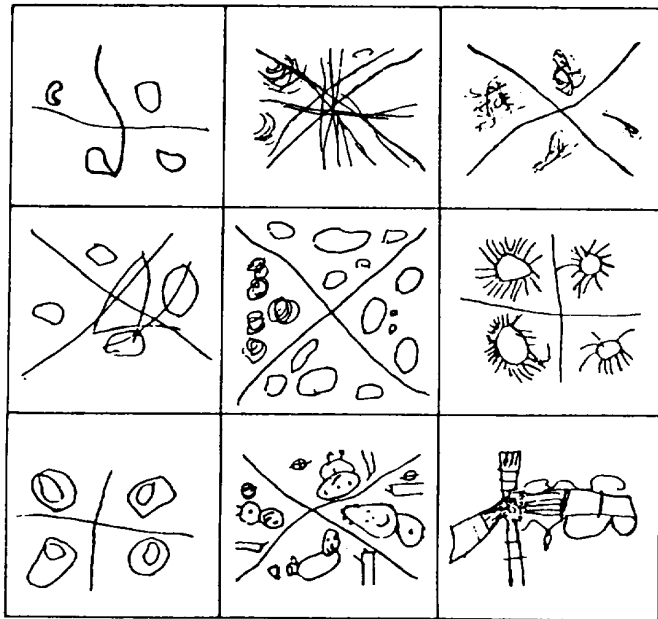
<그림 28>
 “20개의 기본
 낙서표현 패턴”
 (캘로그, 1970)



<그림 29>
 결합(combine)의 유형(3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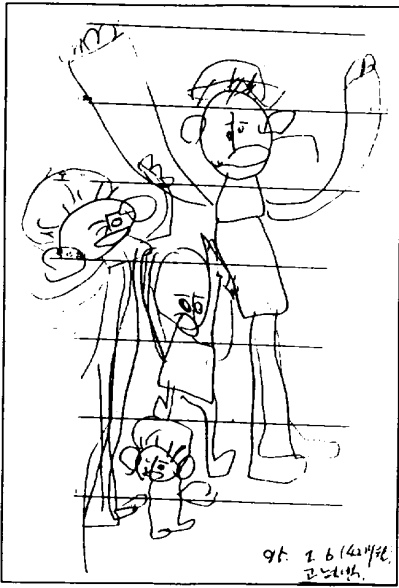
<그림 30> 36개의 가능한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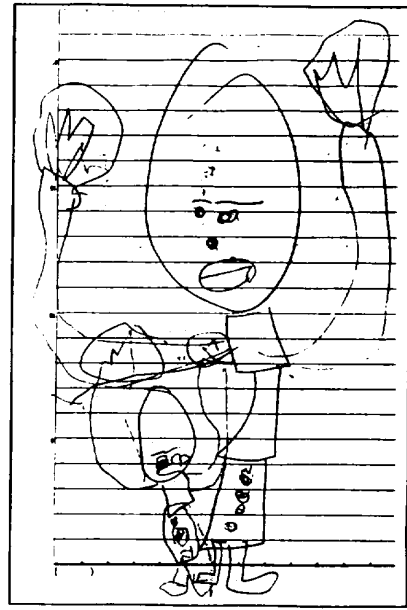
<그림 31>
"각종 만다라 표현"

	난 화 기 (2-3 세)	선 화 기 (4 세)	기술적 상징기 (5-6 세)	사실화기 (7-9 세)	시각적 사실화기 (10-11 세)
버티 (Burt)					
	낙서 시기 (2-3 세)	만다라 시기 (Mandalas)	도식기		
켈로그 (Kellogg, R.)					
	난 화 기 (2-4 세)	전도식기 (4-7 세)	도식기 (7-9 세)	사실적 경험 시기 (9-11 세)	
로웬펠드 (Lowenfeld, V.)					
	신생아기 (1-3 세)	난 화 기 (3-5 세)	전도식기 (5-7 세)	도식기 (7-9 세)	
장 프 송 (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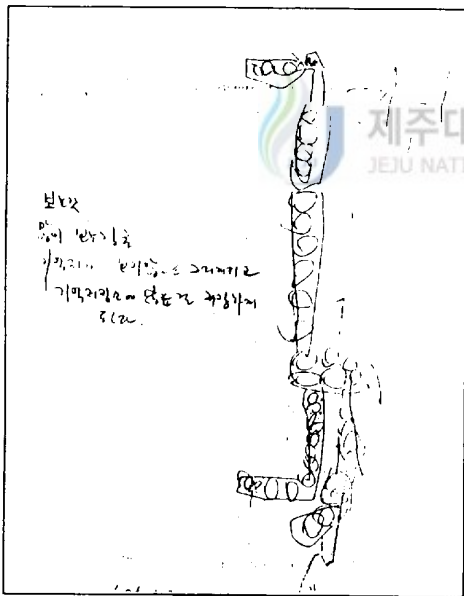
<그림 32>
연구자별 미술표현
발달단계



<그림 33>
3세,남.이모가족과 나, 연필



<그림 34>
3세,남.엄마와 나, 연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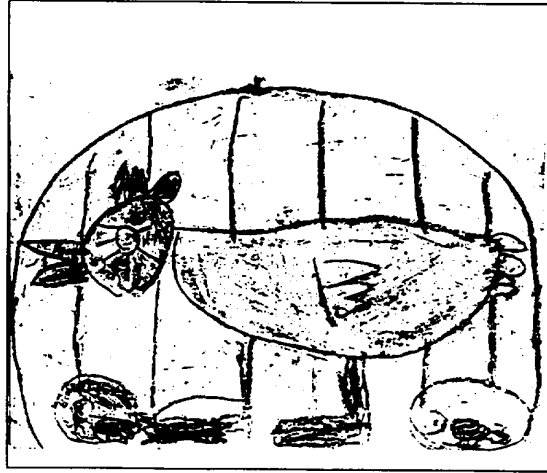
<그림 35> 3세,남.기린,볼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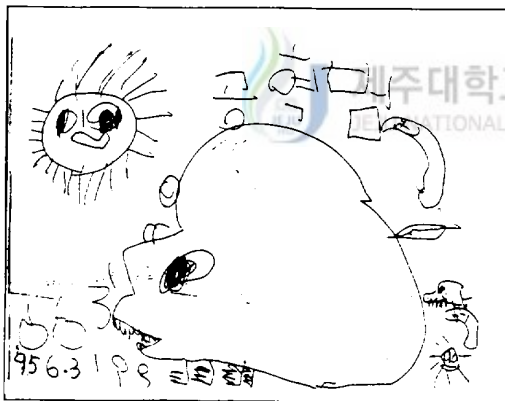
<그림 36>
3세,남.사슴과 고양이, 볼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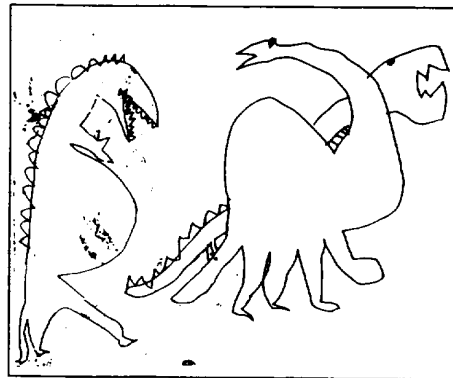
<그림 37> 4세,여,가족,볼펜



<그림 38> 3세,남,새장,크레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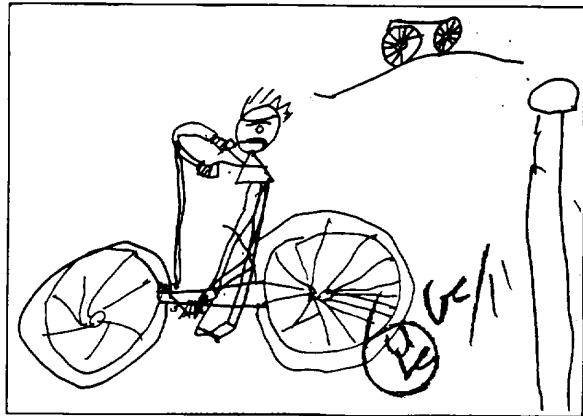


<그림 39>
3세,남,엄마와 아기하마, 볼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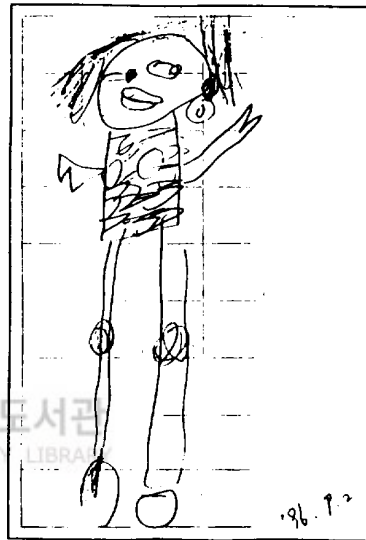


<그림 40> 4세,남,공룡,볼펜

<그림 41>
4세,남,자전거타기,싸인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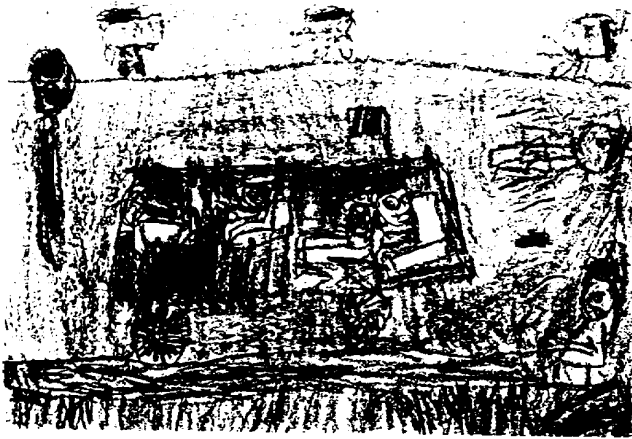
<그림 42>
4세,남,도깨비가족,크레파스와 물감



<그림 43>
5세,남,엄마,연필,“보고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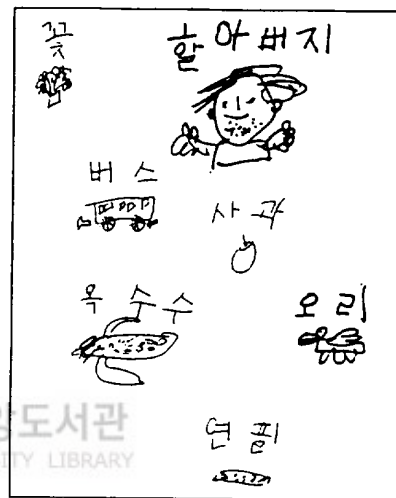
<그림 44>
5세,남,다간,크레파스,“만화
영화”



<그림 45>
4세,남,신호등과 자동차,크레파스,
"기저선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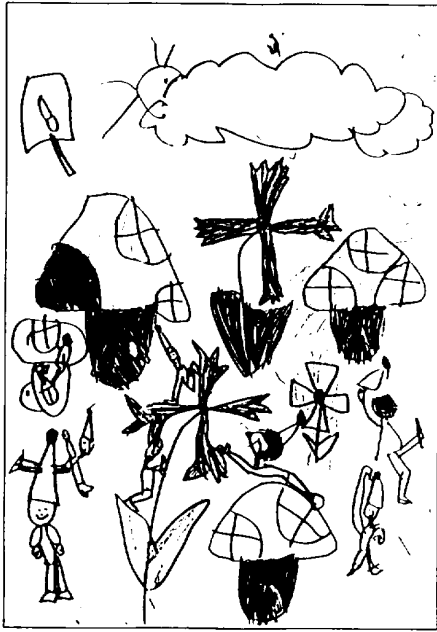
<그림 46>
5세,여,우리집,싸인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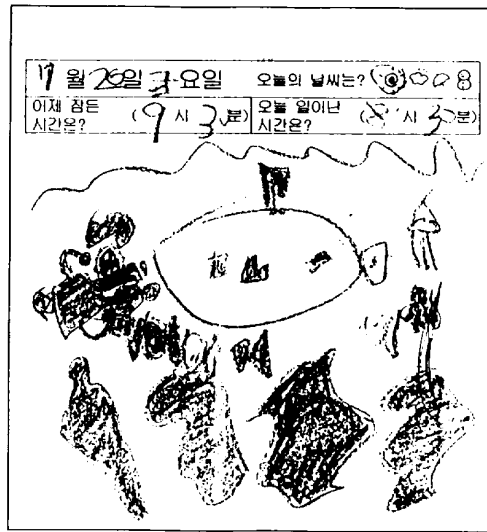
<그림 47>
5세,남,할아버지와 연필,
볼펜과 싸인펜, "실명적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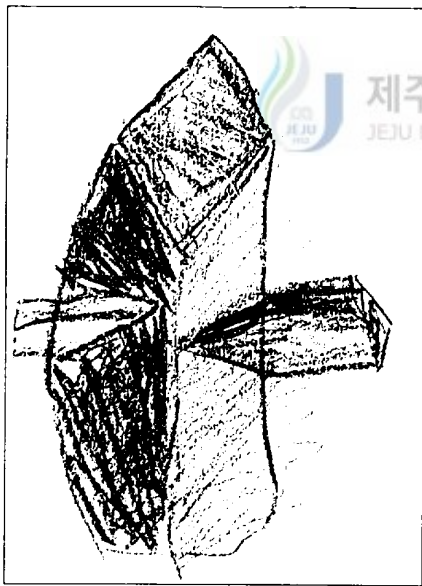
<그림 48>
5세,남,우리2층집,크레파스,
"투시화 표현"



<그림 49>
5세,여,동화나라,싸인펜



<그림 50>
5세,남,해저관광,색연필,“경험화”



<그림 51>
5세,남,석고도형,크레파스



<그림 52>
5세,남,바닷속나라,싸인펜,“동존표현”